

2016 예술로 가로지르기

경계와 차이

Frontiers & Differences

1/3권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2016 예술로 가로지르기

경계와 차이

Frontiers & Differences

1/3권

2016 예술로 가로지르기

경계와 차이

Frontiers & Differences

1/3권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목차

1/3권	인사말	6
	기획의 글	10
	프로그램	20
	프로필	30
	모두 다 발언	50
	현장 사진	56

2/3권	DAY 1 - 2016.07.27	9
	DAY 2 - 2016.07.28	235

3/3권	DAY 3 - 2016.07.29	11
	DAY 4 - 2016.07.30	165
	DAY 5 - 2016.07.31	341

인사말

경기도의 다양한 지역 안에서 예술적인 삶을 지향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예술로 가로지르기>가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4박 5일간 진행된 '인문학 씬머아카데미'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셨습니다.

<경계와 차이>라는 주제로 예술과 디자인, 예술과 건축, 지역과 아시아, 시흥의 지역성 등을 화두로 예술 장르 간 교차지점에서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 전문가, 일반인이 한데 모여 새로운 실험과 도전에 대한 시작의 깃발을 꽂는 자리였습니다. 교류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관점들이 오고가는 순간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기도 곳곳에서 이러한 '가로지르기'가 발생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시흥시와 공동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원하는 주제를 선택해 예술가와 시흥시 곳곳을 가로지르며 체험, 토론, 현장탐방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도 곳곳을 도는 경기도 순회 지역예술특성화 사업 중 하나로 자리잡아가는 예술로 가로지르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Greetings

<Crossing Over with Art>, a program that is open to participation by anyone in the various regions of Gyeonggi Province pursuing or promoting the artistic life, is now in its fourth year. Many people have participated in the "Humanities Summer Academy" that was held for five days in the summer heat.

Under the theme of <Frontiers & Differences>, it was the ideal venue for artists, experts, and ordinary people from various fields to mark the beginning of new experiments and challenges, and to discuss art and design, the arts and architecture, the region and Asia, and the regionality of Siheung at the intersection of artistic genres. We witnessed many outstanding moments in which personal networks were formed and various perspectives were exchanged.

This year, the event was held jointly with Siheung-si in the hope that such "crossing over" would take place throughout all of Gyeonggi Province. The participants had the time to select a theme and roam around various parts of Siheung with the artists to experience, discuss, and visit. It is our sincere hope that <Crossing Over with Art> will establish itself as one of Gyeonggi Province's specialized regional arts tour projects.

Sul Won-gi
President,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올해 여름 시흥시를 뜨겁게 달군 <예술로 가로지르기: 경계와 차이>행사를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경기문화재단과 모든 관계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술로 가로지르기: 경계와 차이>는 국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전문가, 기획자, 예술가 250여명이 참가하여, 환경, 생태, 예술과 디자인, 지역을 넘는 다양한 장르의 예술로 시흥 곳곳마다 활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흥에 거점을 두고 활동하는 문화기획자 4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라운드 테이블 : 4인 4색 동상이몽>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장에서 활동 하는 지역예술가들의 사례발표와 공유의 자리야말로 문화바라지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뚜렷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외에도 시흥의 문화재생현장 곳곳을 돌아보는 워크숍, 지역주민과 상인이 함께 예술로 호흡하고 있는 <월곶예술공판장_Art Dock>기획자들과의 열띤 토론, 젊은이들과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삼미시장'의 <밥상머리파티 인(人)삼미시장> 등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시흥시는 올해를 문화도시의 원년으로 삼아 전국지방정부 문화드레제전, 시흥 바라지 에코뮤지엄, 열린음악회,古음악 페스티벌, 우리동네 음악회 등의 다양한 문화공연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화바라지' 프로젝트를 준비해왔습니다. 향후에도 '돌보다'는 뜻의 순우리말 '바라지'처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뒷바라지 하며 문화가 시민의 일상이 되는 시흥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시흥시의 문화 예술이 시민들과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김윤식

시흥시장

Greetings

I express my sincere gratitude to all of the related foundations and people who have helped us successfully hold the <Crossing Over with Art: Frontiers & Differences> event which heated Siheung this summer.

At the <Crossing Over with Art: Frontiers & Differences> event, over 250 people – consisting of cultural art professionals, planners, and artists active in Korea – participated to energize the streets of Siheung with various genres of art, encompassing the environment, ecology, design, and local region.

In particular, among those is the story of <Round Table: Same Bed, Different Dreams>, about four cultural planners who have been performing in the Siheung area, was quite memorable. This is because it has shared and presented lives of regional artists, and therefore shows us the direction of cultural baraji (assistance) business for the future.

In addition to this, we participated in cultural programs such as the workshop where we could explore the fields where culture is actually generated, the discussion with planners of <Wolgot_Art Dock> who are living together with the region's residents and merchants through art, the <On the Table Party In(人) Sammi Market> of Sammi Market where young people and artists are present together.

Marking 2016 as the first year of the culture city project, Siheung City has prepared the "Cultural Baraji (Assistance)" project, which sets to allow diverse cultural performances to be accessible to citizens in their everyday lives, including the cultural Durejejeon of the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Siheung's Baraji (assistance) Eco Museum, Open Concert, Old Music Festival, Our Town's Concert, and more. As "baraji" is an old Korean word that means "to take care of", Siheung City aims to become a city where culture becomes a part of the people's everyday lives.

We wish for your continued interest and encouragement so that Siheung becomes a city where cultural art can blossom together with its citizens, and thank you all once again for your support.

Kim Yoon-sik
Mayor, Siheung City

《예술로 가로지르기》는 어떻게 준비되었을까?

올해로 4년차를 넘어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경기문화재단의 대표적 기획사업인 《예술로 가로지르기》는 2013년! 여름! 처음으로! 동시대 예술계의 주목 받는 인물 (작가, 이론가, 기획자)들을 중심으로 경기창작센터=예술가의 집이라는 장소적 특수성과 함께 예술전문섬머아카데미로서의 자리매김을 분명히 하면서 2014년까지 2년간 진행되었다. 제3회《2015 술수:術數》는 지역성을 화두로 주제의식을 내세워 경기도를 순회하는 예술전문아카데미로 첫 신호탄을 올리게 된다.

제4회 《2016 경계와 차이》-공공기관의 특성상 연속사업 3년을 넘기기 어려움에도-는 문화와 예술 전반에서 각 분야를 제대로 가로지르는 묘수가 무엇이 될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고, 자기전문성을 확고하게 획득한 전문가/프로 중에서 본인의 역량을 초월하려는 사고를 보여줄 수 있는 인물(그럼에도 또 다수가 호기심을 가질만한)로 방향성을 잡았다.

그간에 초청된 연사들이 시각예술분야, 즉, 주로 미술 내에서 타 영역을 넘나들며 다원성을 가진 인물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번에는 각 장르 전문가들이 자기의 관점으로부터 각자의 한계를 뛰어넘어 예술을 향한 더 새로운 무엇, 다가올 미래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기를 희망하였다.

《예술로 가로지르기》는 매번 집단지성의 토대로부터 기획의 실마리를 찾아 왔기에, 올해도 어김없이 여러 두뇌들이 힘을 합쳤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뿜내어 본다면, 여러 기관이 가로지르기를 시도한 점이다. 시흥시의 초청으로 시설협조를 받고, 평생학습과와 카운터 파트너로 출발하여, 문화관광과, 도시정비과, 경제정책과, 중앙도서관과 전통시장 상인회를 가로질러 기획의 판과 거점을 확보한다. 칸막이행정으로 이름을 날리는 기초지자체 공무원들이 벽을 거두고 도와주기에 이르렀다. 시흥시 평생학습과의 실무자(정희운)와 상상공감팀장(김정애)의 전방위 노력이 공감을 끌어낸 것 같다.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 문예진흥실 기획사업부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수차례 라인업을 조율하였고, 빈틈들은 경기창작센터 출신 작가(봄날예술인협동조합, 최정수, 정현주, 박진, 강소영릴릴)들과 미술전문잡지 『월간 퍼블리아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완해 나갔다. 첫날부터 거의 매일 자리를 지키며, 강연의 맥과 흐름을 잡아주신 김종길 이미지비평가의 지원과 김월식 작가의 유연한 기획은 가로지르기 3일차를 역동적으로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좀 지쳐가려하는 4일차 마지막 저녁을 연극적 이벤트와 음악적 전율로 뒤흔든 송호준의

공연기획은 모두의 감동을 불러와 뜨거운 여름밤을 더 후끈 달아오르게 하였다. 4박5일간의 이 모든 행사들이 사고 없이 잘 치러진 데에는 호우무사같은 문성진문예진흥실장이 든든히 버티고 있는 덕분이다.

지난 3년간 애정을 가지고 가로지르기 책을 만든 디자이너 『커넥서니드』, 영상촬영을 늘 도맡았던 『갤러리 라한』과는 아쉬운 이별을 하고, 올해는 야심차게 .한. 디자인 한다는 『PaTI』가 홍보물 디자인과 책을 만들었고, 촬영은 장성욱 감독이 총괄했다.

한걸음 더, 가로지르기의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자

대 주제는 예술을 중심에 두고, 디자인, 건축, 출판, 지역(경기도 지역을 순회할 것이므로, 지역성은 필연적이었다) 으로 한정한다.

우선, 디자인계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을 조사하였다. 타이포그래피 안상수는 그런 면에서 예술로 가로지르기의 초대인물로 적격이었다. 글-디자인-책-예술-건축-대안적 활동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아우를 수 있었다. 날 좋은 어느날, 굿모닝하우스(舊.경기도지사 관사) 게스트 하우스 벽화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안상수 날개를 현장에서 직접 섭외하면서, 첫 스타트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지역의제를 산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시흥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자문회의를 열고, 그들의 아이디어로 지역성에 대한 현장워크숍과 강연을 기획한다. 기획의 실행은 시흥시 실무자와 지역 활동가(작가포함)들이 직접 판을 짰다.

거듭된 지속사업의 특성상, 라인업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부분도 쉽지는 않았다. 누구나 만나고 싶은 인기인은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5월에야 본격 출격할 우리의 시간대를 이미 벗어나 있었다. 역대 가로지르기가 추구해 온 전문성과 예술, 트렌드를 선도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도 간과하지 않으려 신경 써야 했는데, 다양한 사람들(예술가, 애호가, 기획자, 대학생)의 관심을 끌기위해서 누구나 호기심을 불러오는 <이슈몰이/ 논쟁>이 가능한 주제나 인물이어야 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신청사 건물로 논쟁의 중심에 서고, 도시적인 광고 배경 영상으로 자주 출몰하는 송도 트라이볼을 설계한 건축계의 노장, 유걸을 초청하게 되었다. 80세 노장의 이야기는 한 마디 한 마디 깊은 철학이 배어 있어,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담론들이 의미심장했다. 미래와 창조에 관한 업을 지닌 예술가로서의 건축가와 공존가치를 추구하는 새로운 건축에 대한 미래비전에 대한 강연은 신비로움이 느껴지기까지...!

요즘, 독립출판이 핫 이슈이다. 개인출판이 범람하는 시대로 접어들면서,

디지털화와 함께 출판물, 인쇄물, 책에 대한 소비의 흐름은 그 판을 달리고 있었다. 가로지르기 2차에서 예술계 안에서의 세련된 아티스트 북(아카이브로써의 책)이나 출판기획과 전시기획의 경계에 선 워크숍이 이미 다뤄졌다면, 이번에는 예술에서부터가 아닌, <책> 그 자체와 <출판>에 대한 본질적인 물음을 던져 보고 싶었다. 일반적으로 삶의 이동과 이사에는 시간과 함께 쌓여가는 <책>이 골치덩이가 되기 일쑤고, 스마트 기기 사용의 증가와 함께 서서히 <책>의 읽힘이 소멸되어 가지만, 반면 개성 넘치는 독립출판의 정체에 대해서는 막연한 동경과 호기심이 작동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피터와 강군을 초대하게 되었다. 독립출판기획을 10년 이상 지속하고 있고, 출판 평론가라고 자처하는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들어 보는 자리로.

구구절절 모든 강연자들의 섭외과정을 밝히는 것은 중략... (흔쾌히 섭외에 응해, 내용협의와 회의에 진솔하게 응해주신 모든 강연자들에게 심심(甚深)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가장 마지막에 섭외가 된 이들은 다름 아닌, 기초강연과 마무리 강연자였다. 우리의 시작과 끝을 잘 여담아줄, 그러나 미술계에서 중요한 동시에 여러 장르나 주제를 넘나들고 아우를 수 있는 가로지르기 인사들이 필요했는데, 아무래도 1회 때 초청되신 박찬경감독 만한 사람이 없었다. 사실, 박찬경과 박찬욱을 동시에 초청하는 '파킹찬스'로 흥행성을 노렸지만, '아가씨' 개봉일과 맞물려 그를 초청하기엔 이미 늦었으며, 상업적으로 성공한 영화산업계의 감독과 실험적인 예술영화에 몰두하고 있는 박찬경을 필두로 가로지르기를 열고 난 이후를 감당하기에는 준비시간과 기획에의 한계지점이 발생했다.

안전하게... '예술로'출발하기로 했고, 흔쾌히 박찬경 선생님께서 강연에 응해 주셨다. 경기문화재단의 청과 독립기획자 안대웅의 부탁을 거절하시기가 어려웠다는 답변을 예상하고, 안대웅씨에게 거절하기 힘들 '박찬경 섭외' 미션을 주었던 셈이다.

마무리 강연에 초대되었던 이대형 큐레이터는 우리의 섭외와 맞물려, 마침 2017년 베니스비엔날레 커미셔너로 선임이 되어, 그와 연을 맺은 기획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으리라 예상하였다. 몇몇이 예상대로 찾아와 주었으나, 거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국제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는 기획자는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다른 별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인지, 신랄한 비판적 목소리가 청중으로부터 들려왔고, 그러한 반응이 되려 반갑고, 맥이 잡힌 시간이 된것 같아 의미가 남달랐다. 지난밤 광란의 파티 후에 모두

기진맥진한 줄 알았더니...!

전날 ABC 파티는 4일내내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뿔뿔한 일정을 소화해낸 참여자들이 진정 '해체'와 '사이키델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는 흥분과 열정의 도가니였다. 송호준과 이우에 산다는 독립기획자(추명지)가 추천한 인연으로 파티기획을 의뢰했다. 아주 그럴듯한 성공이라고 자평한다.

전체 커리큘럼의 대략적인 틀은 문예진흥실에서 기획하였지만, 디테일한 내용까지 일일이 점검할 시간은 매우 부족하였는데, 섭외가 반인 셈이었다. 초대된 기획자와 작가들이 십분 역량을 발휘하여, 시작부터 과정과 결과에 도달하기까지 마치 잘 짜여진 시나리오처럼 모든 프로그램이 잘 맞닥뜨려진 느낌이 왔다.

부연요약하자면, 첫 기초강연의 박찬경, 예술과 디자인의 안상수·김종길 대담, 지역과 아시아의 김월식은 아시아의 정신성과 이상향, 우리 신화에 대한 다양성을 절묘하게 연결시켜 《2016 예술로 가로지르기》의 키워드들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으며, 정신성에 대한 담론은 건축(유결)이라는 주제와 만나 우리의 시선을 잠시 미래로 향하게 했다. 발이 땅에서 멀어지는가 싶자마자, 박해천의 명징한 현실사회에 대한 분석은 모두의 정신이 퍼덕 들게 만들었다. 그리고 현대차 예술프로젝트와 함께 세계로 야심차게 나아가는 기업과 현대미술의 파트너십까지~! <2016 경계와 차이>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며 장르의 한계와 초월, 그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고 싶었다.

한편, 오후에 이뤄진 섹션워크숍의 기획은 좀 더 획기적이면서, 치밀할 필요가 있었다.

몸의 감각을 깨우기 위한 워크숍 강사로, 현대무용계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김윤진과 차진엽, 즉흥댄스와 음악, 우주의 기운과 소통하는 브루키나 파소 댄스팀, 정통 연극화술 전문가이자, 모 TV 예능방송 <마리텔> 출연으로 이슈가 되었던 김현아를 섭외하였다. 1차적으로 무용, 공연예술을 위한 프로그램은 실습장소의 부적절함으로 시너지를 반감시킨 측면이 있었다. 전신을 비추는 벽면 거울과 최소한 마루 바닥으로 된 넓직한 천정 높은 연습실이 요구되었지만, 중형강의실의 한계로 분위기를 몰입시키기 어려웠던 점이 사뭇 아쉬웠다.

그리고, 움직임 워크숍만 쫓아 듣기보다는, 하나 짚은 듣되 다양한 워크숍을 경험토록 의도했던 최초의 기획과 달리, 참여자들 중엔 움직임만 쫓아다니는 이들이 생겼다. 브루키나 파소 댄스팀은 강소영릴리의 <태초의 지구>와 연계하여 기획을 하였는데, 그 연결고리로 연속된 워크숍을 들은 참여자는 애석하게 거의 없었다.

워크숍 내용이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 쇼나, 정보의 나열이 되면, 오전 강연에 이미 많은 정보를 입력받은 참여자들을 지치게 하고, 식곤증을 이기기 어려워지게 마련이다. 적절한 표현과 개념정리 위에 중언부언 만연체로 늘어지지 않도록 강연자들의 노력도 매우 요구되는 것이 워크숍 프로그램이다. 90분 이내로 제한된 강연에 비하여, 워크숍은 3시간에서 4시간까지도 이어지기 때문에, 내용면에서 역동성을 떨 필요가 있고, 대학 강당이나 포럼에서 주어지는 평이한 정보의 호수는 불필요하다. 오히려 어디서도 듣기 힘든 뒷얘기나, 현실경험에 대한 실토, 보기 힘들거나 구하기 어려운 영상물 상영이 값진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다. 더욱이 초청된 강연자의 인간적인 매력이 한껏 돋보인다면, 청산유수의 입담 보다, 어설피 보이는 유머와 감각적인 태도가 훨씬 설득력을 발휘하고, 그것이 바로 현장감으로 되살아나, 우리 모두에게 현실경험과 강한 인상으로 각인된다.

《예술로 가로지르기》의 취지는 정보와 지식 공유를 넘어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어가고, 참여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그 뜻밖의 충격들이 새로운 경험으로 거듭나고자 함이다.

시간의 축적과 반복, 이 지속성과 더불어 의미가 와글와글 생성되길...!
(2016.어느.날.안상수.날개.말.인용.)

2016년 11월. 글 김진희

Editor's Words How was 《Crossing Over with Art》 planned?

《Crossing Over with Art》, the representative project of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has continued to grow since establishing itself for the first time in the summer of 2013 as a professional arts summer academy with the local particularities of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 Artists' Home, centering on contemporary artists under the spotlight (artists, theorists, planners). The third annual event, 《2015 Stratagem》, promoted the theme of "locality" to spearhead the start of the professional arts academies' tours of Gyeonggi Province.

4th Annual 《2016 Frontiers & Differences》-Although it is difficult for a public institution to continue a project for over three years, this event started from the idea of tightly interweaving all areas of the cultural and artistic arena, and focused on individuals whose thought processes can transcend their own capabilities, including experts and professionals who have acquired concrete expertise in their respective fields (and who can also attract many people's attention).

Whereas the invited guests were individuals with multiple aspects in the field of visual arts, that is, with the ability to traverse other fields within the field of art, this event was planned in the hope that experts from each genre would transcend their limitations in perspective and deliver a message about the impending future to create something new in the arts.

As 《Crossing Over with Art》 has always looked for planning ideas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numerous brains have combined their efforts again this year; and one area where progress was made this year was the fact that several institutions endeavored to "cross over." The foothold and site for planning was secured with facility support at the invitation of Siheung-si, and starting as a co-partner with the Department of Lifelong Education, a crossing-over was achieved with the Department of Culture and Tourism, Department of Urban Maintenance, Department of Economic Policy, the Central Library, and traditional market merchant councils. Local government officials, known for their "partitioned administration," pulled down their partitions and came to help. The all-around efforts of the Department of Lifelong Learning Officer Cheong Hee-yoon and the Imagination Sympathy Team Leader Kim Jung-ae led to a consensus.

Planning and Project Department of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Culture and Arts Center, Culture and Arts Promotion Branch all came together to adjust the lineup on multiple occasions, and the missing links were filled by alumni artists of the Gyeonggi Cultural Center (Spring Day Artist Cooperative Association, Choi Jeong-soo, Jung Hyun-joo, Park Jin, Kang So-young Liillil) along with the art network magazine Monthly Public

Art. The support of image critic Gim Jong-gil, who stayed in place almost every day from the start and set the flow of the lectures, and the flexible planning of artist Kim Wol-sik, played a dynamic role in completing the third day of Crossing Over. The performance planning by Song Ho-jun, shaking the last and tiring evening of the fourth day with a theatrical event and musical electricity, stirred people's emotions and made the hot summer night even hotter. The reason why all of these events were held without any incidents for five days is that the leader of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Branch, Moon Seong-Jin, oversaw everything like a robust bodyguard.

Bidding farewell to the designer, 『Confectioned』, who made the Crossing Over books with such dedication over the past three years, and to 『Gallery Rahan』 which always took care of video taking, this year, 『PaTI』, renowned for its design work, took charge of the pamphlet and book design, while director Jang Sung-wook supervised the filming.

Now let's take a look at the contents of Crossing Over.

The main theme the event was the arts, and was limited to design, architecture, publishing, and region (as Gyeonggi Province was the tour destination, 'regionality' was essential).

First, noteworthy individuals in the design field were inspected. Typographer Ahn Sang-soo was appropriate as a guest for Crossing Over with Art. The narrative encompassed writing, design, book, art, architecture, and alternative activities. Ahn Sang-soo, working on the One Sunny Day, and Good Morning House (official residence of the Gyeonggi Province governor) guesthouse mural project, was directly arranged on site, and the first start embarked.

During the process of deriving a regional agenda, experts active in the Siheung region were invited to a council meeting, and field workshops and lectures on regionality were planned with their ideas. The execution of the plan was taken up by Siheung-si officials and regional activists (including the artists).

Characteristic of a repeated, continuous project, making new lineups was not an easy job, either. Popular people whom everyone wants to meet were too busy, being way out of our timeframe, which only really started in May. Care had to be taken not to overlook putting the focus on the expertise and leading individuals in the arts and trends which past Crossing Over events have pursued; and, in order to attract the attention of diverse people (artists, manias, planners, university students), the topics and guests had to be capable of handling issues and debates that attract wide attention.

Thus, veteran architect Yoo Kerl, who was at the center of the debate

surrounding the new Seoul City Hall building, and designed the Songdo Tribowl which often appears as the background of urban advertisements, was invited. Each word in the story told by the 80-year-old veteran had a deep philosophy embedded within it, and the narrative he told his juniors was profound. Even the lecture on the architect as an artist working on the future and creation, and the future vision of a new architecture promoting a value of coexistence, felt mysterious...!

These days, independent publishing is a hot issue. In an era overflowing with individual publishing, the flow of consumption of publications, prints, and books has been changing along with digitalization. Whereas the 2nd Crossing Over event included a workshop on a refined artist book (book as an archive) within the artistic field and the boundary between publication planning and exhibition planning, this time we hoped to pose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book> itself, not originating from art, and <publication>. Generally, books become a nuisance that pile up over time, especially when moving, and the reading of books is gradually becoming extinct with the increasing use of smart devices, but an unclear admiration and curiosity about the identity of unique independent publishing could emerge.

Thus, Peter and Kang-gun were invited. This was intended as a venue for hearing a realistic story from people who have been planning independent publishing for over ten years, calling themselves publication critics, and making books.

Tenaciously explaining the recruitment processes of every lecturer shall be avoided... We would like to express a word of thanks to all the lecturers who accepted our invitation and sincerely responded to the content coordination and meetings.

The last people to be recruited were none other than the opening and closing lecturers. We needed cross-over individuals who could open and close our event excellently, and who were important in the artistic field yet could also traverse various genres or topics simultaneously; but there was no one who could match director Park Chan-kyong, who was invited for the first event. Actually, we aimed for popularity with "Parking Chance," inviting both Park Chan-kyong and Park Chan-wook, but it was too late to invite the latter as the opening date of "The Handmaiden" overlapped, and there was a limit to the preparation and planning to bear the aftereffects of hosting a Crossing Over event centered on a commercially successful film director and another, Park Chan-kyong, who makes experimental art films.

We decided to begin safely with "art," and Mr. Park Chan-kyong readily agreed to give a lecture. Expecting the answer that it would be difficult to

refuse the request of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nd pleading by independent planner Ahn Dae-wook, we gave the irresistible mission of "recruiting Park Chan-kyong" to Ahn Dae-wook.

Curator Lee Dae-hyung, who was invited for the closing lecture, was appointed as the 2017 Venice Biennale commissioner, so it was anticipated that the planners related to him would follow. A few of them came as expected, but as if a planner who is leading an international project with the sponsorship of large corporations became a story from another planet, harshly critical voices rose from the audience, which was actually a welcome response, making the event feel more meaningful and giving it a distinct flow. And we thought they were all tired from the party last night...!

The ABC party from the previous night was a night of excitement and passion for the participants, who had endured a tight schedule from 9 a.m. to 9 p.m. for four days, to truly drive up to "deconstruction" and "psychedelic." The planning of the party was entrusted to an independent planner (Choo Myung-ji) living in Song Ho-jun's neighborhood, and we are proud that it was a very successful party.

The rough outline of the entire curriculum was planned by the Culture and Arts Promotion Branch, but there was little time left to individually verify all the details, recruitment being almost half of the entire work. The invited planners and artists demonstrated their abilities, and the program felt like a well-written scenario from the start of the process to its conclusion.

As an additional explanation, Park Chan-kyong's opening lecture, the dialogue between Ahn Sang-soo and Gim Jong-gil on art and design, and Kim Wol-sik of the region and Asia brought to the surface the keywords of 《Crossing Over with Art 2016》 by connecting the mentality and utopia of Asia with the diversity of our mythologies, and the discourse on mentality met the topic of architecture (Yoo Kerl) to temporarily direct our attention to the future. Just as it felt like our feet were getting farther from the ground, Park Hae-cheon's critical analysis of the real world made everyone return to their minds. Also, there was a partnership of companies and modern art that boldly reached abroad along with the Hyundai Motors art project~! < Frontiers & Differences 2016> was designed to encompass all of these topics and to think about the limits and transcendence of genres, as well as the differences existing between them.

On the other hand, the section workshops of the afternoon had to be more innovative and elaborate.

The instructors recruited for the workshops on awakening the bodily senses included Kim Yoon-jin and Cha Jin-yeop, who are regarded

as leaders of modern dance; the Burkina Faso dance team, which communicates with impromptu dance, music, and cosmic energy; and Kim Hyun-ah, an expert in traditional theatre speech who became famous after appearing on the TV entertainment show My Little Television. Practically speaking, the inappropriateness of the practice rooms reduced the synergy of the dance and performing arts programs. Although practice rooms with a wall mirror capable of reflecting the entire body, a wooden floor, and a high ceiling were required at the very least, the limitations of the mid-sized lecture halls regrettably made it difficult to create an immersive experience.

Also, contrary to the original plan in which the participants would experience diverse workshops, including perhaps one movement workshop rather than solely taking movement workshops, there were those who only followed the movements among the participants. The Burkina Faso dance team was planned in coordination with Kang So-young Liillil's <Earth at the Beginning>, but, unfortunately, there were almost no participants who took the connected workshops together.

If the workshops become simply a sort of arrangement involving the presentation slideshows or information, participants who have already received lots of information in the morning become tired, and often succumb to post-lunch drowsiness. Workshop programs require lecturers to put in a tremendous effort to avoid listing long explanations on top of precise expressions and concepts. In comparison to lectures which are limited to 90 minutes, workshops can continue for up to 3 or 4 hours, so the contents must be more dynamic, and the plain lake of information available in university lecture halls or forums is unnecessary. Instead, background stories that cannot be heard elsewhere, confessions about real-life experiences, and the screening of videos that are hard to see normally will make for a meaningful time. Moreover, if the humanist nature of invited lecturers is emphasized, then awkward humors and sensitive attitudes will be more persuasive than eloquent speeches, which will reinvigorate as one-site experiences to be imprinted as a real-life experience and make a strong impression on all of us.

The objective of 《Crossing Over with Art》 is to transcend the sharing of information and knowledge to continue their networks, savor the joys of participation, and integrate surprising shocks into new experiences.

The accumulation and repetition of time; here's to hoping that along with this continuity, meaning will be generated endlessly...!(2016. Reference to Ahn Sang-soo's side note on One Sunny Day)

프로그램

DAY 1 - 2016.07.27. 수

기조강연	10:00-11:30	박찬경	귀신, 간첩, 할머니: '무늬'로서의 주제
워크숍	14:00-17:30	김지하	실험 영화와 예술의 경계
		안지미, 이부록	예술가와 책
		성기완	사운드아트 입문_청각 공간의 이해
		김윤진	또 다른 언어, 몸과 춤, 그리고 도전
		서준호, 이제	스페이스 오뉴월과 합정지구의 대안모색 실험
라운드 테이블	19:00-21:00	최정수, 김정식, 박진 이생강, 김정이	4인4색 동상이몽(시흥문화발전소 창공)
		김정연, 정지돈 황예인	젊은 문학인들의 대답: Enema of Fiction_후장사실주의에 대하여

DAY 2 - 2016.07.28. 목

예술과 디자인

강연	09:00-12:00	김용진	독립출판의 판 짚기
		안상수, 김종길	날개 머리 위, 날 뿔 꿀 멧 짓
워크숍	14:00-17:30	진금주	통영, 예술인 장소 마케팅과 문화전략
		강지웅, 이보람, 임소라	독립출판의 생존전략
		김현아	신체의 소리를 활용한 화술 워크숍
		차진엽	움직임을 디자인하다 -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 존재와 생성
		최문경	PaTI 타이포그래피 워크숍
	19:00-21:00	시흥사거리 워크숍	미션! 밥상머리 파티 in(人)삼미시장: 시장 뷔페 즐기기+현장공연

강연	10:00-11:30	김월식	감각 언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워크숍	14:00-17:00	무늬만 커뮤니티 (김월식)	근육의 생각
		엠마누엘 사누 아미두 자바떼 손소영, 강소영릴릴	원초적 감성회복: 브루키나 파소 서아프리카 음악과 춤
		이생강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류성효	움직이는 모듈, 아이디어의 발견과 실천
라운드 테이블	19:00-21:00	최성우, 창파, 박수지 양자주	지역, 장소 그 폐허를 넘어...

DAY 4 - 2016.07.30. 토

예술과 건축

강연	10:00-11:30	유결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축
		박해천	아수라장의 모더니티: 하나의 국민, 두 유형의 중산층
워크숍	14:00-18:00	천대광, 백기영	건축과 조형의 넘나들기
		윤희양	도시 놀이 개발 프로젝트
		봄날예술인 협동조합	생태예술현장 속으로_예술로 뿔뿔하기
		강소영릴릴 히로후미 아사히	태초의 지구 걷기
		조형섭, 서평주	열린 도시, Cross&Connect
ABC파티	19:00-21:00		해체와 사이키델릭

DAY 5 - 2016.07.31. 일

강연	09:30-11:30	이대형, 정일주	아트와 기업의 동반성장_현대차 현대미술프로젝트를 중심으로
	11:30-12:00	모두 다 발언	참여자들의 이야기

Program

DAY 1 - 2016.07.27. WED

Opening Lecture	10:00-11:30	Park Chan-kyong	Ghost, Spy, Grandmother: Theme as a "Pattern"
Workshop	14:00-17:30	Kim Ji-ha	The Boundary between Experimental Films and Art
		An Jimi, Lee Boorok	Artist & Books
		Sung Gi-wan	Introduction to Sound Art: Understanding Auditory Space
		Kim Yoon-jin	Another Language, Body and Dance, and Challenge
		Seo Jun-ho, Lee Jae	Experiment to Find an Alternative to Space O'New Wall and Hapjeong Jigu
Round Table	19:00-21:00	Choi Jeong-soo Kim Jeong-sik, Park Jin, Lee Saeng- gang, Kim Jung-yi	4 People 4 Colors, Same Notion, Different Ideas (Discussion meeting for planners in Siheung)
		Keum Jung-yun, Jung Ji-don, Hwang Ye-in	Conversation with 20/30 Young Writers: Enema of Fiction_On Anal Realism

DAY 2 - 2016.07.28. THU Art and Design

Lecture	09:00-12:00	Peter Kim Yong-jin	Feeling the Field of Publishing_Professional Amateurism
		Ahn Sang-soo Gim Jong-gil	Ahn Sang-soo_Wing_Above Head, Blade Horn Look Swag Act
Workshop	14:00 - 17:30	Jin Geum-joo	Tongyeong (Control and Management) and Artists, Their Space - Mainly on Places Commemorating Yoon Yi-sang and Park Kyung-ri
		Kang Ji-woong Lee Bo-ram Lim So-ra	Between Sustainability and Survival Strategies
		Kim Hyun-a	Speech Workshop Using Bodily Sounds
		Cha Jin-yeob	Designing Movements - Visualization, Existence, and Formation of the Invisible
		Choi Moon-kyung	Paju Typography Institute(PaTI) Open Class: Typography Workshop by Instructor Choi Moon-kyung
	19:00 - 21:00	Siheung Crossroads Workshop	Mission! Dining Table Party in Sammi Market: Enjoying Market Buffet + Live Performance

DAY 3 - 2016.07.29. FRI Region and Asia

Lecture	10:00-11:30	Kim Wol-sik	How to Translate Sensory Language
Workshop	14:00-17:00	Community Only in Shape(Kim Wol-sik)	Thoughts of Muscles
		Emmanuel Migaelle Sanou, Amidou Diabate, Son So-young, Kang Soyoung liillil	Primitive Recovery of Sensitivity: Burkina Faso West African Music and Dance
		Lee Saeng-gang	Case of Cultural Regeneration: Centered on Changgong
		Ryu Seong-hyo	Moving Modules, Discovery and Action of Ideas
Round table	19:00-21:00	Choi Sung-woo Chang Pa, Park Suzy Yang Jazoo	Beyond Region, Location, and Its Ruins

DAY 4 - 2016.07.30. SAT Art and Architecture

Lecture	10:00-11:30	Yoo Kerl	Architecture for Everyone
		Park Hae-cheon	Modernity of Pandemonium: One Nation, Two Types of Middle Class
Workshop	14:00-18:00	Chen Dai-goang Baek Gi-young	Traveling between Architecture and Models
		Woops Yang Baik In-tae	Urban Play Development Project
		Spring Day Artist Cooperative Association	Into the Site of Ecological Art_Wasting Time with Art
		Kang soyoung lillilil Hirofumi Asahi	Dream Time
		Cho Hyeong-seob Seo Pyong-joo	Open City, Cross & Connect
ABC Party	19:00-21:00		Deconstruction and Psychedelic

DAY 5 - 2016.07.31. SUN

Lecture	09:30-11:30	Jung Il-joo Lee Dae-hyung	Joint Growth of Art and Companies_ Based on Hyundai Motors Art Project
	11:30-12:00	Everyone's Speech	Stories from Participants

귀신, 간첩, 할머니, '무늬'로서의 주제

— 박찬경

1965년 서울태생. 서울대 회화과, 캘리포니아 예술대학 사진 전공. <블랙박스 냉전 이미지의 기억>(1997), <세트>(2000), <파워통로>(2004), <비행>(2005), <신도안>(2008), <그날>(2011), <갈림길>(2012), <만신>(2013) 등을 발표하였다. 금호미술관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쌈지아트 스페이스, 아뜰리에 에르메스, PKM 갤러리, 아카데미 스퀘어 로스 솔리튜드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2004에르메스미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비행>은 2008오버하우젠 단편영화제 경쟁 부문, <신도안>은 2009국제실험영화제 개막작 선정. 이후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안양에>로 전주영화제 한국장편부문 대상, <파란만장>으로 2011베를린국제영화제 단편 부문 황금곰상을 수상하였다.

실험영화와 예술의 경계

— 김지하

홍익대 미술학 박사, 연세대 영상대학원 영화를 전공하고 매사추세츠 대학교 객원연구원을 지냈으며, 홍익대, 한양대, 서울여대 등에서 실험영화와 매체미학 관련 강의 및 전시기획을 하였다. 한국영화학회 국제학술이사 및 일본영상학회 정회원이며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 실험영화 아카이빙 프로젝트 책임연구원으로 아시아 각 지역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다. 저서로는 <차학경 예술론>등이 있다.

전시가 책이 될 때

— 안지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전공. <정병규디자인><월간 GEO><출판판사>를 거치면서 북디자인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의 인문 사회 예술 분야의 책을 디자인했다. 인디문화 담론이 활발했던 90년대 후반에는 인디잡지 <팬진공>창간 작업에 참여했다. 2003년 디자인-출판 스튜디오 <그림문자>를 만들고 <워바타-전쟁그림문자><NY/Upset Newyork> 외 다수 권 출간하였고 2008년 이부록과 함께 'UPSETPRESS'를 결성, 출판-디자인-뉴미디어-공공미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시각이미지 생산자로서 사회에 개입

할 수 있는 영역을 꾸준히 탐구하고 있다. 2000년 <김구용 문학전집>(도서출판 솔)으로 <시사저널> 선정 올해의 복디자인, 2003년, 2015년 <세계민담전집>(황금가지), <자기록>(나의시간)으로 [한국백상출판문화상] 등을 수상하였고, 2011년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디자인이 좋은 책' 대상, 2012 '디자인이 좋은 책'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 이부록

이부록은 영상, 설치, 출판 등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성장과 개발 논리에 의한 파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외와 배제된 가치를 찾는 작업을 해왔다. 주요 전시로 <slow season project...탐구생활부록>, 2007년 <Warvata-Sticker project>(아르코미술관), 2009년 <Newism movement-paleface project>(서울시립미술관, 청계창작센터), 2010년 <파블로프의 사나운 개와 슈뢰딩거의 고양이>(경기창작센터), 2013년 <금지된 숲>(복합문화공간예무), 2014년 <건축적부록>(갤러리잔다리) 등이 있다. 최근에는 망각된 기억을 귀환시키는 아카이브 작업을 리무부라는 이름으로 병행하고 있다.

사운드아트 입문: 청각공간의 이해

— 성기완

1967 서울태생. 서울대 불문학과 졸업 후 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94년 세계의 문학 가을호에 시를 발표하면서 서 중단. 시집 <소핑 갔다 오십니까?>(1998) <유리 이야기>(2003), <당신의 텍스트>(2008), <ㄹ>(2012) 발표. 산문집 <장밋빛 도살장 풍경>(2002), <모듈>(2012) 등을 출간했다. 밴드 3호선버터플라이의 4집으로 2013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앨범상을 수상하였다. 솔로 앨범으로는 <나무가 되는 법>(1999), <당신의 노래>(2008), <ㄹ>(2012)이 있다. 소리보관 프로젝트인 서울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SSAP)의 실장이기도 하다.

또 다른 언어, 몸과 춤, 그리고 도전

— 김윤진

한국춤을 기반으로 컨템포러리 댄스를 섬세하고 유연하게 풀어내는 안무가 김윤진은 <육망>(2004), <침묵하라>(2005), <노래하듯이>(2006), <다녀오세요, 구두가 말했습니다>(2007) 등 음악, 연극, 시각예술과의 협력작업을 통해 장르 간 경계를 넘나들며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다.

한국의 SID와 뉴욕 DTW 합작의 <Kisaeng becomes you>(2009)는 '성공적인 도박'-Claudia La Rocco, The New York Times, '전치의 예술'-Deborah Jowitz, The Village Voice 등, 성공적인 국제 협력 작업으로 평가 받았다. 2011년 <구룡동 판타지-신화재건 프로젝트>, <춤추는 꽃중년 프로젝트-룸 퍼포먼스, 밝힐 수 없는 무엇의 나눔>(2012)등 장소성, 지역성, 관계성 등을 기반으로 춤의 사회적 소통 가능성을 실험하고 있다. 현재 국민대 공연예술학부 교수이며, 서울댄스프로젝트 기획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스페이스 오뉴월과 합정지구의 대안모색 실험

— 서준호

5월과 6월을 아울러 이르는 '오뉴월'은 여름 한창, 한여름을 뜻하는 말이다. 2011년 6월 성북동에서 시작한 스페이스 오뉴월은 한여름의 뜨거운 열정으로 꾸며지는 새로운 전시 공간이다. 장르, 연령, 매체, 국가, 시대가 한데 들끓으며 생겨나는 젊은 에너지로 새로운 문화의 가능성을 찾는 예술 실험실로서 스페이스 오뉴월은 '도시-이미지-문화'를 매개하는 에이전트가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예술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의 문화적 이슈에 개입하는 다양 전시, 학술 행사 및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 이제

합정지구는 서울 합정역 부근 조용한 주거지에 위치한 전시장이다. 합정 지구의 '지구'는 '地球, earth', '地區, local', '지구' 持久라는 다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작가와 기획자들의 자발적이면서 다양한 협업구조로 운영되는 이곳은, 창작과 연대를 통해 '이 시대 예술로 함께 살아내기'를 실천하고자 만들어졌다. 합정지구는 매 해 첫 전시로 <지구전>을 갖고 그 해 참여하는 작가와 기획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4人4色 동상이몽(시흥 거점 기획자 토론회)

— 최정수 / 진행자

1972년 제주출생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와 동대학원, 독일 STUTTGART KUNSTAKADEMIE를 졸업했다. 2014-15년 아르코 공공미술 시범사업<지역재생+예술> 황금산프로젝트 중 지역커뮤니티를 기반한 '아지타트'프로젝트, 시흥시 도일시장<문 프로젝트>, <JEJU를 끌려주하다>, <꿈발상>등 마을커뮤니티 프로젝트와 문화예술교육 기획에 참여했다. <감정전이>(16), <운수좋은날>(11),

<BOUNDARY>(02) 등 총 5회의 개인전을 가졌으며, 60여 회의 그룹전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였다. 현재 경기창작센터 PROJECT RESIDENCE 입주작가로 활동 중이다.

— 이생강 / 토론자1

아직도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고집쟁이.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공장이든 광장이든 옥상이든 어디든 좋았다. 이 곳 저 곳의 큐레이터, [미술과 담론] 웹진 취재기자,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의 기획팀장 외 사회와 예술을 매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활동하였다. 대표 독립프로젝트로는 2012년부터 CROSS 프로젝트-[신정아: 냉정한 신도시의 아이스박스], [눈미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관한 미미한 예술적 고찰]이 있다. 현재는 복합문화공간반줄(종로) 큐레이터, 2016 경기창작센터 입주 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 김정미 / 토론자2

예술경영을 공부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행정, 공연·축제·전시기획, 무대기술 분야 재직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약 7년간 설계(HRD) 운영, 좀 제대로 하기 위해 교육공학을 공부한다. 지식에너지연구소를 창업, 예술, 교육과 관련된 컨설팅과 연구에 참여한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문화예술기획경영전문인력 양성,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생활문화공동체 발전방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공연예술계약목실태조사 등이다. 직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팀장이었고, 현재는 월곶예술공판장 대표로 생애 처음 매개자가 아닌 진짜 현장을 제대로 경험하는 중이다.

— 김정식 / 토론자3

도일시장 주인기획자. 1971년 시흥군 군자면에서 태어나 지금도 군자동에 살고 있고 앞으로도 군자동을 지키고 살아갈 군자동 토박이다. 현재 사는 마을에서 통장을 하면서 도시 재생을 알게 되었고 2013-2015 회암 마을 만들기와 2016년에는 도일·산들 마을기업에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1년부터 시작된 도시 맞춤형 정비사업을 시흥시 도시정비과와 함께 진행하고 있으며, 마을 활동가와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리고 통장으로서 마을 지키미를 하고 있다.

— 박진 / 토론자4

어떠한 직업의 형태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삶의 방식이 가장 행복하다 느끼고, 예술매개자로 다양한 활동을 하려 한다. 예술과 시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2014년 경기창작센터에서 <대부도 숨은 문화 찾기>

<황금산에 올라간 피리 부는 사나이> 등 지역협력사업 기획 및 진행을 하였다. 2015년부터 지역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꾀하기 위해 뜻을 함께할 동료들과 팀<야행>을 구성하고, 대부도에서 주민과의 공유지대를 꿈꾸는 <문화공간 섬자리>의 대표로 움직이고 있다. 또한 시흥시 모랫골 마을에서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매니저로 활동 중이다.

20/30 젊은 문학인들의 대담:

Enema of fiction_후장사실주의에 대하여

— 김정연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서 인문 분야 MD로 일하다 본격 서평가의 길에 들어섰다. <서서비행> <난폭한 독서>는 그의 독서편력과 책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서평집. 정지돈, 오한기, 이상우 등과 후장사실주의자 그룹을 결성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정지돈의 말을 빌리면 “자타공인 대한민국에서 개를 제일 사랑하는 남자”이기도. 닭은꼬리 돌놀 글리슨과 가세 료의 이름이 언급됐으나 긍정도 부정도 아닌 웃음만 흘렸다.

— 정지돈

2013년 <눈먼 부엉이>로 등단. 지난해 <건축이나 혁명이나>로 제6회 문학동네 젊은작가상 대상을 수상했다. <창백한 말> <미래의 책> 등 지금까지 6편의 단편소설을 선보였고 소설집으로는 [내가 싸우듯이]가 있다. 오한기와 비슷하게 십대 댄 영화를 꿈꿨다. 지적인 작가, 공부하는 작가답게 문학, 미술, 영화 등 그의 축수는 넓고 깊게 뻗어 있다. 대화를 나눌 때도 인명, 도서명, 영화명 등 고유명사를 대방출한다.

— 황예인

동물행동학자가 되고 싶었으나 어쩌다 보니 대학에서 한국문학 전공. 대학원 입학 때 교수가 소설은 기니까 시를 연구하라고 해서 한국현대시를 전공으로 삼았으나 그것도 벽차서 석사수로. 2012년 문학동네 편집부에 입사한 이래 국내 문학팀에서 계간지와 소설 단행본을 만들고 있다. 현재 문학동네 국내문학 팀장. 점성학 공부를 하며 주변 인물들에 대한 깊은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얼마 전 후장사실주의에 속한 네 명의 소설가의 출생차트를 열어보고, 무의식의 뿌리이자 영혼의 영역인 4번 하우스에 별이 하나도 없음을 발견하고 문학과 작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깊어졌다.

독립출판의 판 짚기_프로아마추어리즘

— 김용진

2000년 독립잡지 <싱클레어>창간. '당신에게 한 페이지가 주어진다?'이라는 콘셉트로 개인작업자들에게 글을 받아 구성하는 잡지이다. 2008년부터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독립출판물 워크숍 <진메이킹> 강좌를 진행했다. 2011년부터는 상상마당에서 독립잡지 기획강좌 <마가진가씨><어바웃 북스 프리스쿨>를 기획 및 진행한다.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며 신촌기차역 옆에 작업실 <신촌서당>에서 산다.

안상수_날개 머리 위, 날 꿀 꿀 멋 짓

— 안상수

1952년생. 안상수는 홍익대학교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원을 나왔다. 1981-84년까지 월간 「마당」의 아트디렉터로 활동했고, 1985년 안그라픽스를 설립해 디자인 전문집단의 명성을 얻었다. 1991년부터 22년 동안 모교인 홍익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디자이너이자 교육자로 쌓아온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파주출판도시에 독립 디자인학교인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파티)'를 세우고 동아시아의 지혜 바탕과 뿌리를 중시하는 새로운 디자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안상수는 1985년 탈네모를 한글꼴 안상수체 발표를 비롯하여 이상체, 미르체, 마노체 같은 독창적인 한글 글꼴을 발표했고, 1988년 계간 「보고서/보고서」를 창간해 전위적인 편집디자인으로 한글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등 한글 타이포그래피를 비약적으로 쇄신해 왔다. 국제그래픽연맹(AGI) 회원이며, 2007년 독일 라이프치히 시가 수여하는 '구텐베르크 상'을 수상했다. 2015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 근현대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시각분야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 김종길

1968년 전남 신안 증도에서 태어나 광주와 금강 유역에서 자랐다. 20대 초반 목포 문화해 '갯돌'의 대반동 미술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예술의 사회적 실천에 눈을 뒀고, 당시 원효사상과 소설가 박성룡의 『죽음의 한 연구』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군 제대 후 쓴 해방 50주년을 주제로 한 「숲」이라는 희곡이 대학연극제 본선에 올라 국립극장에서 공연

되었다. 김정숙 선생을 만나 형(形)의 본질을 배웠고, 홍명섭 선생에게서는 미학의 우물을 보았다. 다큐멘터리 구성작가 김옥영 선생으로부터는 서사의 '맥잡기'를 깨우쳤다. 김옥영 선생과는 짧은 인연에 불과했으나 깊게 남아서 늘 회초리가 되었다. 민중의 일상성에 깃들어 있는 미적 이미지를 연구하면서 자연미술과 바깥미술에 관심을 가졌고, 역사적 민중미술과 지금 여기에 당도한 인류의 미의식에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포스트 민중미술 사연/리얼리즘』(삶창) 외 다수가 있다.

통영(統營)과 예술인, 그들의 공간 -

윤이상·박경리 기념공간을 위주로

— 진금주

2015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현재 서울대학교 국토문제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지역에 문화·예술적 공간이 생성되기까지 관(官)·민(民)이 펼쳐왔던 정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요인 및 해결 방안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조성된 공간들이 만들어내는 도시의 변화에 관심이 많다. 문화와 예술을 지역 공간과 연계한 연구를 해왔고, 섬과 숲에 대한 관심으로 사단법인 섬연구소 이사로 활동하며 관련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지속가능성과 생존전략 사이

— 강지용 / 강연자

사회학을 전공하면서 문화적 현상이자 사회적 징후로서 표출되는 독립출판의 다양한 흐름과 면모들을 관찰해왔다. 독립출판 제작자들이 직접 자신의 출판물을 소개하는 키퍼런스와 독립출판을 주제로 한 세미나를 기획하고 연설했다. 새로운 출판물들이 계속해서 등장하지만 오래 지속되지 않는 것이 독립출판의 특징이라 생각하면서도, 세상에 그러한 책이 있었다는 자취를 남길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독립출판 리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싱클레어>의 수석 에디터이기도 하다.

— 이보람 / 대담자

책방 '헬로인디북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작자와 독자들이 끊임없이 드나드는 이 책방에서 흥미로운 작업들이 자주 시작되곤 하는데, 최근에는 독립출판물을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는 '독립출판물 읽는 사람들 리더스 클럽'을 진행하고 있다. 책 이외의 형식으로 독립출판물의 내용이 전달될 수 있

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헬로-굿즈'를 제작했다. 북 마켓 '퍼블리셔스 테이블'을 기획하고 진행한 바 있다.

— **임소라 / 대담자2**

<How We Are> 발행인으로 날카로운 시선과 재치가 담긴 여러 출판물들을 제작하고 있다. 주로 바인딩 기법으로 책을 제작하느라 책을 짓는 것 못지않게 묶는 데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만큼 단단한 책을 만들고 있다. <강릉가는 길>, <사소설>, <시간이 많아서> 등을 제작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방식 책방 How We Are'를 운영했다. 책방을 닫은 뒤에는 책방에서 쓴 한숨들을 고르며 책방 폐업기 <한숨의 기술>을 제작했다.

신체의 소리를 활용한 화술워크숍

— **김현아**

단국대 예술대학 연극영화학과에서 학사를 받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연극원(СПбГАТИ, Russian State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연기&연출학과에서 전문과과정(Specialist, 1996~2001)을, 동 대학원에서 예술학박사(지도교수 E.I.Kirillova, 2006)를 취득하였다. V.Fokin의 초청으로 모스크바의 메이어홀드센터(ЦИМ, Meyerhold Center, 2001~2004)에서 배우로 활동하였으며, 상트페테르부르크(2003)와 모스크바(2004)에서 주관하는 화술(Theatre Speech in Russia) Master Class 에 참가하였다.

움직임을 디자인하다 - 비가시적인 것의 가시화,

존재와 생성

— **차진업**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영국 런던 컨템포러리 댄스 스쿨에서 PG Diploma와 MA를 졸업했으며, 영국 Hofesh Shechter 무용단, 네덜란드 Galili 무용단 등에 입단, 해외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였다. 국내에서는 LDP 무용단의 창단멤버로 활동했으며 국립발레단의 객원안무 및 트레이너로써 활동하였다. 현재 Total Art를 지향하는 Collective A를 창단하여 창단 공연으로 선보인 작품 "Rotten Apple: 로트애플"은 공연의 새로운 형식을 확장시켰다는 평가 함께 '2012 베스트 작품상', '춤연가상'을 받으며, 그녀의 작업은 무용 뿐 아니라 음악, 시각예술, 영화, 영상, 사진, 패션, 연극, 뮤지컬, 설치미술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을 통해 새

로운 장르로 넓혀 나가고 있다. [2014 인천청애인아시아경 기대회] 안무총감독으로 위촉되어 개폐회식안무를 맡은 바 있다. 2014년 문화예술발전유공자로 선정되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으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하였다.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PaTI) 오픈클래스:

최문경 스승의 타이포그래피 워크숍

— **최문경**

그래픽 디자이너. 로드 아일랜드 스쿨 오브 디자인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바젤 디자인 학교에서 타이포그래피를 전공했다. 타이포찬치 2015 큐레이터로 참여했고 현재 파주타이포그래피학교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가르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타이포그래피 교과서』, 『당신이 읽는 동안』이 있다.

미션! 밥상머리 파티 in(人)삼미시장:

시장 뷔페 즐기+현장공연

— **공연단체 소개**

시골에 살고 있는 슈퍼백수 사이는 유랑뮤지션이자, 음유시인이며, 유기농 펍코프의 창시자이다. 사이의 음악은 관계를 향한 말 걸기며, 우주보다 거대한 농담이다. 사이의 노래들은 깊은 사색을 동반하면서도 유쾌하고 재미있다. 더불어 그의 발랄한 무대매너와 함께 귀전을 타고 오는 노랫말들은 공격성이 없으며 평화로운 삶을 생기 있게 묘사하면서 신세계에 대한 안내를 잊지 않는 기발한 음악이다. -최명진- 이한 곡의 음악(아방가르드개론 제1장)을 통해 우리는 진정성이라는 말 대신 대안적인 태도와 방식의 가치를 확인하며 진보적 음악의 진화를 목도한다. -서정민갑- "안녕, 나는 사이야. 너는 누구니?" -사이-

7월 29일(금) - 지역과 아시아

감각언어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근육의 생각

— **김월식**

김월식은 고도의 압축 성장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산업화 과정을 함께한 커뮤니티의 전체주의적 목적성을 경계하며, 발전과 성장의 동력이자 조력자로서의 개인의 가치에 주목하는 작업을 해왔다. 안양공예예술프로젝트에서는 예술보다 창의적이고 독립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의미들을 존중하며

이를 공유하고 나누는 프로젝트인 '누니만 커뮤니티를 진행 하였고 그 외 생활문화재생 레지던시 '인게시장프로젝트', 중 증 장애인과의 협업극 '총체적난 극', 동시대 아시아 예술가 들의 커뮤니티에 대한 연구 'cafe in asia'와 시흥시의 '모두 를 위한 대안적 질문 A3레지던시'를 기획하였다.

원초적 감성회복: 브루키나 파소 서아프리카 음악과 춤

— 엠마누엘

한국 이름은 임산우(숲과 산, 빗속에서도 춤추는 이란 뜻). 2012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 공연단으로 처음 한국에 왔다. 2014년 2월, 박물관 내 인종차별 및 노동착취 사건을 언론에 공개하고, 진실한 아프리카 문화를 알리기 위해 '쿨 레 칸'이란 공연예술팀으로 결성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아프리카 전통 춤 및 현대무용을 전공한 약 14년 경력의 무용가 및 안무가로, 유럽과 아프리카를 오가며 아프리카 춤 워크숍을 진행해왔다. 한국에서는 특히 젊은 친구들에게 아프리카 춤의 자유로움과 에너지를 함께 공유하고 싶다고 한다.

— 아이두

본명은 아이두 자바떼(Diabate). 유서깊은 젤리(음악가 계 급) 집안에서 태어나, 음악은 인생이라는 운명을 타고 났다. 13세에 마을 축제에서 독자적으로 연주할 수 있는 젤리로서 인정받았고, 다양한 예술경연 대회에서 발라폰 연주로 1~2 위를 수상했다. 악기 발라폰을 살아있는 존재처럼 대하며, 음악으로 이야기를 나눈다. 그리고 발라폰과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줄 것이라 믿는다. 한국 이름은 철수. 농담과 노래를 통해 한국어를 배우며, 아시아의 다양한 전통 음악들을 배우고 함께 연주하는 것을 꿈꾼다.

— 손소영

처음에는 엠마누엘과 아이두의 친구, 포천아프리카박물관 사건을 함께 해결하며 이들을 만난 건 운명이라 깨닫고, 함께 동고동락하며 '쿨레칸' 기획 및 매니저 활동을 하고 있다. 아이두의 노래 속 담긴 오래된 인류의 지혜에 반했다. 아프리카 춤과 음악의 씨를 한국에 싹틔워, 음악과 춤이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오는데 힘쓰고 싶다. 엠마누엘과 아이두, 소영 은 국내 문화단체 'Escola Alegria'에 소속되어, 아프리카 문화 워크숍 뿐만 아니라 'Koul Kané'이란 이름으로 아프리카 문화관련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에스콜라 알레그리아'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음악인, 댄서 등이 연대해 온 문

화 단체로, 2006년부터 아프리카 및 브라질 문화들을 한국 에 소개해오고 있다.

시흥문화발전소 창공

— 이병강

아직도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 고집쟁이. 예술 적 사건이 일어나는 곳이라면, 그곳이 공장이든 옥상이든 어 디든 좋겠다. 이 곳 저 곳의 큐레이터, [미술과 담론] 웹진 취 재기자,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의 기획팀장을 거쳐, 사회와 예술을 매개하는 다양한 프로젝트의 기획자로 활동 하였다. 대표 독립 프로젝트로는 2012년부터 CROSS 프로젝트-[신 정야: 냉정한신도시의아이스박스 Icebox in the Cold New Town], [눈미미: 눈에보이지않는것들에관한미미한 예술적고찰 A Petite Artistic Consideration on the Invisible]이 있다. 현재는 복합문화공간반줄(종로) 큐레이 터, 2016 경기창작센터 입주 기획자로 활동 중이다.

움직이는 모듈, 아이디어의 발견과 실현

— 류성호

1973년생. 미술을 전공하고 전시기획으로 일을 시작했으 며, 활동 중 만난 많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2003년 대안문화 행동 제1만 복수의 창단멤버로 가담한 후 독립문화공간 아 지트 예술감독을 거쳐 10년 가까이 일을 했다. 전시기획, 축 제기획, 파티기획, 컨설팅, 문화공간 조성, 문화연구 등 다양 한 일을 경험했으며, 최근에는 2011년 부산화춘프로젝트, 2012년 부산비엔날레 서브프로그램 디렉터, 2012 사운드 웨이브페스티벌, 2012 그래피티 부산 등의 프로젝트 기획 을 한 후 활동지역을 서울로 옮겨 2013년부터 Magazine ELOQUENCE Project Director로 일을 했던 것을 비롯 해 2013년 안산국제거리극축제 Creators Producer 참가, 2014년 성수동 스트리트 아트 프로젝트 Urban Up Seoul 공동기획 등의 작업을 했다. 최근에는 부산에서 영도 갯강이 문화상상마을 프로젝트 예술감독과 시흥 월곶예술공판장의 프로그래머로 일을 하고 있다.

지역, 장소 그 폐허를 넘어...

— 최성우 / 강연자

조형예술경영전공 책임교수. 프랑스 문화성. 문화경영 및 문 화정책 부문 연구과정/Dijon 대학 D.E.S.S.(최고전문가과

정) 문화경영.정책 전공/파리 1 대학 미술사 D.E.A./경희대학교 대학원 미술학 석사/경희대학교 사범대학 미술교육학과. 어릴 때 살던 집의 창문으로 보이던 손바닥만 한 바다를 보면서 어병하게 살다 대학에서야 자신의 할일을 깨닫고 미술을 공부했다. 프랑스에서 문화경영학을 전공하고, 80년 된 여관을 생활밀착형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문화속박업자가 되었다. 다양한 문화예술기획을 하면서 현재 통의동 보안여관 대표,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경영학과 책임겸임교수, 일맥문화재단 이사장을 하고 있다.

— **참파 / 참여자1**

관계 지향적 예술활동과 로컬리티, 도시와 아날로그 문화 활동에 대하여 관심이 많다. 현재 일제 강점기에 세워진 목조여관 '통의동 보안여관'의 창조적 복원과 예술적 활용 사이에서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 **박수지 / 참여자2**

음주가무 좋아하면 조르바 되는 줄 알았다가 그저 필요조건임을 깨달은 사랑장땡주의자. 피로사회에서 소진되지 않은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전)<대안문화행동 재미난 복수> 큐레이터 현)<비아트> 에디터, 독립큐레이터.

— **양자주 / 참여자3**

[Crossing Borders/Crossing Boundaries](SAM 미술관, 샤프 페테르부르크, 러시아, 2016)/양자주 개인전 [REBORN](갤러리 신고, 서울, 2015)/양자주 개인전 [WALL](스페이스 캔, 베이징 798, 중국, 2014)/[HAIKOU INTERNATIONAL YOUTH EXPERIMENTAL ARTS FESTIVAL](하이커우, 중국, 2014)/퍼포먼스 [우빙 트리 엔날레 부산, 2014]/양자주 개인전 [WE DON'T BLAME YOU](Künstlerhaus Bethanien, 베를린, 2011) 등. 통의동 보안여관 사례와 예술가들의 지역 리서치 사례인 rolling 1942, 부산 초량 1925 등을 발표하고,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획자들, 작가와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7월 30일(토) - 예술과 건축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건축

— **유결**

지난 40여 년간 미국과 한국에서 건축설계 활동을 한 건축가 유결은 1998년부터 3년 연속 콜로라도 미국 건축사협회

상을 수상하였고, 김수근 건축상과 건축가 협회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아이아크건축가들의 공동대표이다. 그가 설계한 밀알학교는 KBS선정 한국 10대 건축물이며 미국 건축사 협회상, 김수근 건축상 그리고 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였다. 서울대를 졸업했고 미국건축사(AIA)에 소속해 있다.

아수라장의 모더니티: 하나의 국민, 두 유형의 중산층

— **박해천**

홍익대 BK21 메타디자인 전문 인력 양성 사업단에서 연구교수를 역임했으며, 홍익대, 국민대, 동양대 강의하고 있다. 아파트라는 주거 공간을 통해 한국의 시각 문화를 고찰한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이어, 《아파트 게임》은 한국 중산층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경험과 욕망을 아파트가 어떻게 바꾸어놓았는지 세대별로 면밀히 추적하고 있다. 디자인의 역사는 곧 중산층의 역사이며, 한국 중산층의 역사는 곧 아파트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그는 다양한 글쓰기 방식을 통해 시각문화와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어나간다. 특히 각종 통계와 논문, 소설과 신문 자료를 바탕으로 상황을 설정하여 행위자와 사회 현상의 관계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실험적 글쓰기인 '비평적 픽션'은 한국 사회의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독자의 공감대를 끌어내고 있다.

건축과 조형의 넘나들기

— **천대광**

동국대 미술학과 졸업하고 1996년부터 Kunstakademie Münster에서 Meister까지 약 10여년 간 수학하고, 독일에서 활동했다. 건축과 환경을 기반으로 동양사상과 연관된 장소의존적인 작업을 평면, 사진, 설치, 조각, 미디어, 디자인 등 다양한 영역과 매체를 넘나들며 작업한다. 작가의 작업은 예술적 개입과 실천이 실현되는 공간과 장소에 대한 고찰과 탐구에서 출발한다. 작가는 전시공간의 물리적, 공간적, 건축적 특성이나 전시공간이 위치한 장소의 지형적, 지질학적, 자연적 환경, 때로는 그 장소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 접속하면서 장소특정적(site-specific)인 작업 방식과 전략을 취한다.

— **백기영**

1969년 강원도 평창 봉평에서 태어나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쿤스트 아카데미에서 미디어 예술을 전공하였다. 2006년 광주 의재창작스튜디오 디렉터를 거쳐,

2007년 안산 원곡동에서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디렉터를 역임하였다. 2009년 경기창작센터 개관부터 학예팀장으로 일하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미술관 학예팀장을 지냈다. 2013년 경기문화재단의 문예지원팀 수석학예사로서 문예지원사업, 섬머아카데미 등 교육사업도 기획하였으며 2015년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장을 역임하고 같은 해 11월부터 서울시립미술관 학예 연구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도시 놀이 개발 프로젝트

— 읍쓰양

2013년부터 <도시놀이개발 프로젝트>라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해오고 있다. 도시에서의 놀이란 소비의 연장일 뿐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도시라는 정글에서 유희의 본능을 깨워 소비하지 않고 소모되지 않는 놀이를 개발하고 실험하고 있다.

생태예술현장 속으로 예술로 빨갇하기

— 봄날예술인협동조합(정기현+박준식)

외진 선감도에 자리잡은 창작스튜디오에 입주한 작가들이 해당 지역에 적응 또는 특유의 문화를 접목해 창작활동을 벌일 시간이나 통로가 턱없이 부족했다. 특히 입주 기간이 짧게는 3개월, 길어도 1-2년인 상황에서 예술가들과 지역과의 교감이 이뤄지지 않으니 경기창작센터와 입주 작가들만의 새로운 창작물을 기대키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다. 지난 2013년 '봄날예술인협동조합'이 탄생한 이유다. "입주작가 대부분은 작업실에만 있다보니 지역을 잘 모르고 나가버리면 끝인, 너무 소비적이었다. 레지던시 공간으로서의 역할이나 이곳에 입주한 작가들에게도 문제였다. 입주 작가들을 주축으로 협동조합을 꾸리면서 본격적으로 대부도 나아가 안산 등으로 확장해 지역에서 펼쳐는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제안하고있다."(봄날예술인협동조합 대표 정기현)

태초의 지구 걷기

— 강소영릴릴

초기 지구풍경과 관련된 곳을 탐사하며 멀티미디어 설치 작업을 하는 시각 예술가. 지구의 신성한 에너지를 시각과 소리로 재현하는 작업을 한다. 작업배경이 되는 곳은 주로 지구의 초기 생태환경이 남아있는 곳과 국경선이 복잡하게 얽힌

곳이다. 2006년 남극 킹조지섬의 세종기지에 머물며 처음 극지를 접했던 그는, 2012년 뉴욕의 더 아티스클의 예술가 탐험레지던시에 선발돼 북극항해를 했고, 북위80도를 3주간 항해했다. 2013년에는 NASA우주생물학자들의 탐사일정을 비공식도로 따라서 서호주도 다녀왔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의 경계의 섬들을 다니며 프로젝트를 이어오고 있다. 경기도미술관, 대안공간 풀, 베트남 후예의 안단궁, 타이페이의 핑퐁아트스페이스 등에서 개인전을 했고, 2006년 에테보리 영화제 국제단편부문에 애니메이션을 상영했다. 최근 헤이그의 코르조극장에서 열린 '서울커넥션'의 무대연출을 맡은 바 있으며,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전 플라ستيك 신화들, 문화역 서울284에서 전시를 마쳤다.

— 히로후미 아사히

극지및 고대 지구의 기후변화와 지질을 연구하는 과학자. 고해양학자인 히로부미 아사히 박사는 대양으로부터 지질학 기록을 이용하여 기후의 역사를 연구하고 있다. 그의 연구는 부극 고위도의 후반응을 이해하기 위해 해빙과 빙하가 지질학적 시간의 척도 안에서 세계 기후의 동향과 함께 어떻게 진화해왔는지 중점을 두고 있다. 그는 또한 국제공동 연구 프로그램인 국제 공동해양시추사업 323탐사단(베링해), 341탐사단(알레스카만)에서 북미대륙 빙하의 지난 십만년간의 기록을 찾기 위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현재 그는 한국극지연구소에서 과거 북극해 해빙의 역사를 밝히고 있다.

열린도시, Cross&Connect

— 조형섭

1975년 부산 출생으로, 경기와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다. 독일, 바우하우스 조형대학에서 디플롬 예술가 학위를 마치고 오브제를 기반으로 설치와 영상, 그리고 커뮤니티 아트를 진행하고 있는 작가이며, 주로 사물이나 공간이 가지는 기억을 환기 시키며 새로운 문맥에서 재맥락화 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픈스페이스 배에서 도시 리서치 기반으로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 서평주

2014년 부산대 대학원 졸업 후 작업실을 구할 요량으로 작업실을 찾다 몇몇 불순한 사람들과 함께 우발적으로 공간을 만들었다. 부산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미술인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ABC파티

— 해체와 사이키델릭

퍼포먼스: 강태영(배우), 박현지(배우) + 스페셜 게스트

영상 및 설치: 송호준

포스터 제작: 최상백, 김효숙

음향: 박재식(스윗사운드)

위댄스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지

워터스포츠는 중구난방이지

자이온루즈는 브라질 사람인가

써칭포소울드러머는 드러머를 찾았지

슈가석울은 얼썬얼썬

"너무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에서 에너지 있는 미술(?)작업을 한다는게 너무 어려워요." 송호준(39)

창작, 직관의 권위는 코메디로 털어버리고 에너지는 라이브 뮤직으로 다시 한번. Go!

이들을 달았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하며 '이제 조금 한국미술을 알 것 같다'는 그는 결코 좋지 않은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강으로 외국 행사까지 챙기며 열심히 제 할 일을 하고 있다.

7월 31일(일)

아트와 기업의 동반성장

현대차 현대미술프로젝트를 중심으로

— 이대형

1974년생. 홍익대 예술학과 졸업, 미국 컬럼비아 대학 큐레이토리얼 스터디 석사 졸업. 2008년 큐레이팅 회사인 Hzone을 설립했고, <코리안 아이>, <코리아 투머로우>와 등의 굵직한 전시를 기획했다. 2014년 부산비엔날레 학술행사, 2013년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국제관 학술행사를 기획하였고, 주요 저서로는 세계적인 출판사 SKIRA의 Korean Eye: Contemporary Korean Art I(2010) 등이 있다. 현재 현대자동차 아트디렉터로 활동하며 국립현대미술관, 테이트모던, LA 카운티 미술관과의 파트너십 프로그램, 블룸버그와 협업한 글로벌 아트 방송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2017년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으로 선정되었다.

— 정일주

1974년 태어난 정일주는 산업디자인 전공으로 이화여대 박사과정까지 마쳤다. 일간지, 주간지, 격주간지 편집부를 두루 거치며 기자라는 직업을 벗어나지 못한 그는 월간 <퍼블릭 아트> 편집팀장으로 입사해 지난 2011년 드디어 편집장 타

Ghost, Spy, Grandmother, Theme as a "Pattern"

— **Park Chan-kyong**

Born in 1965 in Seoul. Majored in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majored in photography at the California Institute of the Arts. He announced works including <Blackbox>(1997), <Sets>(2000), <Power Passage>(2004), <Flying>(2005), <Sindoan>(2008), <That Day>(2011), <Crossroads>(2012), and <MAN-SHIN: Ten Thousand Spirits>(2013). Beginning with his first private exhibition at the Kumho Art Museum, he held private exhibitions at such venues as the Ssamzie Art Space, Atelier Hermes, PKM Gallery, and Akademie Schloss Solitude. He was awarded the 2004 Hermes Foundation Missulsang, <Flying> was nominated for the 2008 International Short Film Festival Oberhausen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Sindoan> was selected as the opening film for the 2009 International Experimental Film & Video Festival in Seoul. Afterwards, he won the grand prize in the Korean competition at the Jeonju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We Wish to Reincarnate in Paradise>, and won the Golden Bear for the international short film at the 2011 Berli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with <Night Fishing>.

The Boundary between Experimental Films and Art

— **Kim Ji-ha**

Kim received a PhD in art from Hongik University, majored in film at the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ideo, served as a visiting scholar at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nd has given lectures on experimental films and media aesthetics and planned exhibitions at Hongik University, Hanyang University, and Seoul Women's University. Currently an International Academic Director at the Korean Film Association and a regular member of the Japan Society of Image Arts and Sciences, collects data from various regions throughout Asia and has es-

tablished an archive as a senior researcher of the Experimental Film Archiving Project at the Asia Cultural Center. Written works include <Cha Hak-kyung Art Theory>.

Artist & Book

— **An Jimi**

Majored in communication design. Worked as a book designer at <Jung Byung-gyu Design><Monthly GEO> and <SolBook>, and designed a number of books in the fields of the humanities, society, and arts. In the latter half of the '90s when indie culture narratives were active, participated in the foundation of indie magazine <Fanzine Gong>. Created the design-publication studio <Pictograph> in 2003, published several books including <Warvata - War Pictograph> and <NY/Upset New York>, and formed "UPSETPRESS" with Lee Boorok in 2008, constantly exploring areas for entering society as visual image creators, through various media such as publication-design-new media-public art. Was awarded the <Sisa Journal> book design of the year for <The Complete Works of Kim Gu-yong> (SolBook) published in 2000, the [Korea Baeksang Publication Culture Award] for <The Complete Works of World Folktales> (Golden Bough) published in 2003, and <Jagirok> (My Time) published in 2015; and was awarded the grand prize at the 2011 Well-Designed Book award and the participation prize for the 2012 Well-Designed Book award from the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ssion.

— **Lee Boorok**

Lee Boorok has produced works aimed at finding the isolation and excluded values resulting from destruction of the growth and development narrative, using various media such as images, installation, and publications. Main exhibitions include <Slow season project...research life addendum>, 2007 <Warvata-Sticker project>(Arko Art Center), 2009 <Newism movement-paleface project>(Seoul Museum of Art, Cheonggye Creation Center), 2010

<Pavlov's fierce dog and Schrodinger's lazy cat> (Gyeonggi Creative Center), 2013 <Forbidden Forest>(Emu Art Space) and 2014 <Architectural Addendum>(Gallery Zandari). Recently also doing archiving work for returning forgotten memories under the pseudonym Lee Mubu.

Introduction to Sound Art:

Understanding Auditory Space

— **Sung Gi-wan**

Born in 1967 in Seoul.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ith a degree in French and received a PhD from the same university. Embarked upon a literary career after publishing a poem in the fall issue of World Literature in 1994. Published the poetry collections <Are you coming back from shopping?> (1998), <On Glass> (2003), <Your Text> (2008), and <L> (2012). Published the collections of essays <Rosy Scenery of a Slaughterhouse> (2002) and <Module> (2012). Awarded the 2013 This Year's Album award at the Korean Music Awards with the fourth album of band Number 3 Line Butterfly. Solo albums include <How to be a tree> (1999), <Your Song> (2008), and <L> (2012). Also serves as the director of the Seoul Sound Archive Project (SSAP).

Another Language, Body and Dance, and Challenge

— **Kim Yoon-jin**

Kim Yoon-jin, a choreographer who expresses contemporary dance delicately and flexibly based on Korean dances, has expanded the field by traversing the boundaries between genres through cooperative works with music, theater and visual arts, in such works as <Desire> (2004), <Be Silent> (2005), <As if Singing> (2006), and <Bon Voyage, Said the Shoes> (2007). <Kisaeng becomes you> (2009), a collaboration between Korea's SID and New York's DTW, received much acclaim as a successful international collaborative work: "A successful gamble" - Claudia La Rocco, The New York Times; and "The art

of hyperbaton" - Deborah Jowitt, The Village Voice. Experimented with the possibility of using dance to communicate socially based on locality, regionality, and relationship, through works like <Guryong-dong fantasy - myth reconstruction project> (2011) and <Dancing flower-middle age project - room performance, sharing something that can't be unveiled> (2012). Currently serving as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Kookmin University, as well as planning director of the Seoul Dance Project.

Experiment to Find an Alternative

to Space O'New Wall and Hapjeong Jigu

— **Seo Jun-ho**

"O'New Wall", spanning the months of May and June, signifies the middle of summer. Space O'New Wall, which started in June 2011 in Seongbuk-dong, is a new exhibition space decorated with the fierce passion of midsummer. As an artistic laboratory dedicated to finding new cultural possibilities with the youthful energy formed by genre, age, media, nation, and era all mingling in a single area, Space O'New Wall seeks to be an agent linking "city-image-culture." To that end, it stages various exhibitions, academic forums and public art projects that touch on the cultural issues of the community and the region through art.

— **Lee Jae**

Hapjeong Jigu is an exhibition center located in a quiet residence near Hapjeong Station in Seoul. "Jigu" of Hapjeong Jigu has the multiple meanings of "earth," "local," and "endurance." This gallery, operated through voluntary and diverse collaborations between artists and planners, was created to put into practice "living this era together with art" based on the principles of creativity and solidarity. Hapjeong Jigu holds <Jigu Exhibit> as the first exhibition every year, and introduces the artists and planners who participated that year.

4 People 4 Colors, Same Notion, Different Ideas (Discussion meeting for planners in Siheung)

— Choi Jeong-soo / Facilitator

Born in 1972 in Jeju,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School of Art as a painting major and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and STUTTIGART KUNSTAKADEMIE in Germany. Participated in planning of various town community projects and culture and arts education, such as the "Agitat" project based on local communities among the Golden Mountain projects of the 2014-15 Arko public art demonstration project <Local regeneration + art>, Siheung-si Doil Market <Door project>, <Doing a collage on JEJU>, and <Dream thinking>. Held a total of five private exhibitions including <Emotional Metastasis> (16), <Lucky Day> (11), and <BOUNDARY> (02), and participated in 60 group exhibitions and projects. Currently a resident artist at PROJECT RESIDENCE of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 Lee Saeng-gang / Debater1

A stubborn believer in the idea that art can change the world. If new events were happening, it wouldn't matter whether it was a factory, a square, a rooftop...anywhere was fine. Acted as a curator for various events, a webzine reporter for [Art & Discourse], a planning team leader for [Siheung Culture Playground Chang-Gong], and a planner for various projects linking society and art. Major independent projects since 2012 include the CROSS project - [Shin Jung-ah: Icebox of a cool-headed new city] and [Eye-small: Small artistic contemplation of things that can't be seen with the eye]. Currently serving as a curator for the Complex Cultural Space Banjul (Jongno) and as the 2016 resident planner for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 Kim Jung-yi / Debater2

Studied art management and operated a program at the Arts Council Korea to strengthen the competencies of workers in the cultural administration, performance/festival/exhibition planning, and stage technology fields (HRD) for seven years, and studies

educational engineering to do this more rigorously. Founded the Knowledge Energy Labs, participating in consulting and research on art and education. Works include the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s nurturing of professional culture and arts planning and management personnel, the Korea Arts & Culture Education Service's proposal for the development of a lifestyle culture community, and the Korean Artists Welfare Foundation's survey on the reality of the performing arts contract culture. As the president of Wolgot Art Dock, currently experiencing the field for the first time directly rather than as an intermediary.

— Kim Jeong-sik / Debater3

Resident planner of Doil Market. Born in 1971 in Gunja-myeon, Siheung-gun; a native of Gunja-dong who was born in Gunja-dong and will stay in Gunja-dong in the future. Learned about urban restoration while serving as town chief, and participated in Making a Hopeful Town 2013-2015 and 2016 Doil / Sandeul Town Company. Jointly promoting a city-customized maintenance project that started in 2011 with the Urban Maintenance Department of Siheung-si, and serving as a town guardian as a town activist, project manager and town chief.

— Park Jin / Debater4

Feels happiest in a lifestyle among other people, and tries to engage in various activities as an arts intermediary. Planned and carried out regional cooperative projects such as <Finding Hidden Culture on Daebudo Island> and <The Pied Piper of Hwanggeumsan Mountain> at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in 2014, in order to consider ways of sharing the arts with the general public. Formed the team <Night Traveling> with teammates to carry out continuous activities in the region from 2015, and is serving as the president of <Cultural Place Island-bed>, which dreams of a shared area with the residents of Daebudo Island. Also acting as a manager and planning programs related to activating town communities in Siheung-si Moraetgol Town.

Conversation with 20/30 Young Writers:

Enema of Fiction_On Anal Realism

— **Keum Jung-yun**

Became an active book reviewer after working as a humanities MD at the internet bookstore Aladin. <Book Flying> and <Violent Reading> are collections of book reviews in which his love of books can be seen. Formed an anal realism group with Jung Ji-don, Oh Han-gi and Lee Sang-woo, and exchanges influences with them. Borrowing the words of Jung Ji-don, he is "officially the most passionate lover of dogs in Korea." Was told he looked like Domhnall Gleeson and Kase Ryo, but uttered neither an affirmative nor a negative answer, only a laugh.

— **Jung Ji-don**

Entered the literary scene in 2013 with <Blind Owl>. Awarded the grand prize for the 6th Munhakdongne Young Writers Award with <Is It Architecture or Revolution?>. Author of six short stories including <The Book of the Future>, and a novel collection, [Like I am Fighting]. Like Oh Han-gi, dreamed of movies in his teens. As an intellectual writer and a studying writer, his interests extend to literature, arts, and movies. Even when talking, the proper nouns of names, book titles, and movie titles abound.

— **Hwang Ye-in**

Wanted to be an ethnologist, but somehow ended up majoring in Korean literature in college. Majored in modern Korean poetry at graduate school because a professor said that novels are too long, but the poetry proved too difficult and just completed master's degree course. Since joining the Munhakdongne editorial department in 2012, has been publishing quarterly issues and novels with the Korean literature team, of which is currently the team leader. Studying astrology to promot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people. Recently opened the birth charts of the four novelists of anal realism and discovered that there weren't any starts in house number 4, the area of the roots of the unconscious and the soul, deepening concerns for literature and

novelists.

July 28 (Thu) - Art and Design _____

Feeling the Field of Publishing_Professional Amateurism

— **Peter Kim Yong-jin**

Founded the independent magazine <Sinclair>, composed of text from individual artists under the concept, "What if you were given one page?", in 2000. Conducted an independent publishing workshop <Jean Making> at the Moonji Cultural Institute, Saei from 2008. Since 2011, has been planning and carrying out independent magazine special lectures <Magazin-Gasse> and <About Books Preschool> at Sang Sang Madang. Lives in the studio <Sinchon Seodang> next to Sinchon Station, writing and making music.

Ahn Sang-soo_Wing_Above Head, Blade Horn Look Swag Act

— **Ahn Sang-soo**

Born in 1952. Ahn Sang-soo majored in visual design and attended graduate school at Hongik University. He worked as art director for the monthly [Madang] from 1981-84, and gained fame with professional design groups after founding Ahn Graphics in 1985. He worked as a professor at the Design Department at his alma mater, Hongik University, for 22 years from 1991, and has been carrying out new design education, considering as important the wise background and roots of East Asia, since founding the independent design school Paju Typography Institute (PaTI) at Paju Book City in 2013. Starting with the extra-square form of the Ahn Sang-soo Font, Ahn Sang-soo released unique Korean fonts such as Isang Font, Mir Font, and Mano Font, and dramatically reformed Korean typography by founding the quarterly [Report/Report] in 1988 to experiment with the potential of Hangul through avant-garde

editorial design. A member of the Alliance Graphique International (AGI), he was awarded the Gutenberg Award by the German city of Leipzig. Selected as the subject in the visual field of the "Korea Modern and Contemporary Art History Oral Recording Project" hosted by the Arts Council Korea in 2015, and comprehensive studies on Ahn are under way.

— **Gim Jong-gil**

Born in 1968 in Jeungdo, Sinan, South Jeolla Province, Kim grew up in the neighborhoods of Gwangju and Geumgang. His eyes were opened to the social execution of art while acting as the chair of the Daebandong Art Subcommittee of the Mokpo cultural group "Gaetdol" in his early 20s, and he was influenced heavily by the Wonhyo ideology and [A Study on Death] by novelist Park Sang-ryung. His comedy 「Forest」, which he wrote to commemorate 50 years of Korean independence after leaving the military, went on to the main competition of the University Play Festival and was performed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Met with teacher Kim Jung-sook to learn about the essence of form, and saw a well of aesthetics from teacher Hong Myung-sub. He learned about narrative "context-grasping" from teacher Kim Ok-young, a documentary scriptwriter. Although his connection with Kim Ok-young was short, the impact remained with him and always served as a motivation. He focused his studies on historical popular arts and the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humanity of today. Published books include 「Post Minjung Arts Shaman/Realism」 (Samchang) and numerous others.

Tongyeong (Control and Management) and Artists, Their Space - Mainly on Places Commemorating Yoon Yi-sang and Park Kyung-ri

— **Jin Geum-joo**

After receiving a PhD in geology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2015, Jin began working as a researche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Institute for Korean Regional Studies, analyzing the policies imposed by

the government and the people in the process of cultural/artistic spaces being formed in regions and the conflicts and resolutions that occur in the process, and becoming interested in the changes in cities caused by the spaces formed by such processes. Has studied culture and art in connection with regional spaces, and is also serving as a director of the Corporation Island Laboratory as a result of (his) interest in islands and forests, as well as conducting related studies.

Between Sustainability and Survival Strategies

— **Kang Ji-woong / Lecturer**

Since majoring in sociology, Lim has observed the various flows and aspects of independent publishing as a cultural phenomenon and as an expression of social indicators. Planned and produced a conference for independent publishers to introduce their publications, and a seminar on independent publishing. Although believing that it is a characteristic of independent publishing to constantly release new books that vanish soon after, has carried out an independent publication review project in the conviction that there is a need to leave a mark proving that such books once existed. Also the Editor-in-Chief of <Sinclair>.

— **Lee Bo-ram / Panel 1**

Runs the bookstore "Hello Indiebooks." At this bookstore, where producers and readers constantly come and go, interesting projects are often started: and, recently, the "People Reading Independent Publications_Readers' Club," where people can read and talk about independent publications together, has been in session. "Hello-Goods" was created after considering ways to deliver the contents of independent publications in a format other than the traditional book format. Has planned and carried out the book market "Publishers' Table."

— **Lim So-ra / Panel 2**

As a publisher at <How We Are>, has produced many publications with a sharp perspective and wit. While

it takes as much time to bind the books as to write them because they are made mainly by a binding technique, the books are just as robust. Works include <Way to Gangneung>, <Private Life Novel>, and <Because there's much time>. Ran the "Room-type Bookstore How We Are" in Suwon, Gyeonggi Province. After closing the bookstore she collected the "sighs let out in the bookstore" to write <Techniques of Sighs>, which recounts the experience of closing the bookstore.

Speech Workshop Using Bodily Sounds

— **Kim Hyun-a**

Received a bachelor's degree in theater from Dankook University College of Art, completed a specialist program in acting and production from the Russian State Institute of Performing Arts (1996-2001), and received a PhD in art from the same graduate school (tutor, Professor E. I. Kirillova, 2006). Acted at the Meyerhold Center (2001-2004) in Moscow at the invitation of V. Forkin, and participated in the Theatre Speech Master Class in Russia held in St. Petersburg (2003) and Moscow (2004). Designing Movements-Visualization, Existence, and Formation of the Invisible

— **Cha Jin-yeob**

As an artist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Cha with a PG diploma and an MA from the London Contemporary Dance School, and entered the Hofesh Schechter Dance Team in the U.K. and the Gallii Dance Team in the Netherlands, actively working abroad as well. In Korea, she worked as a founding member of the LDP Dance Team, as well as a visiting dancer and trainer with the Korean National Ballet. After founding Collective A, which pursues Total Art, the opening performance "Rotten Apple" received the "2012 Best Performance Award" and the "Dance Love Song Award," and was praised for expanding a new form of performance. Her works are expanding into new genres through cooperation with diverse artists not only in dance but also

in music, visual arts, film, videos, photographs, fashion, theater, musicals, and installation arts. She was in charge of the choreography for the opening and closing ceremonies as general dance director of the [2014 Incheon Asian Para Games]. Was selected as a "Person of merit for culture and arts development" in 2014, and was awarded the "Today's Young Artist Award" as part of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Commendation].

Paju Typography Institute (PaTI) Open Class:

Typography Workshop by Instructor Choi Moon-kyung

— **Choi Moon-kyung**

Graphic designer. Studied graphic design at the Rhode Island School of Design and typography at the Basel Design School. Participated as a curator in the Typo Festival 2015, and currently teaches typography at PaTI. Translated books including [Typography Textbook] and [While You Are Reading].

Mission! Dining Table Party in Sammi Market: Enjoying Market Buffet + Live Performance

— **Introduction of Performing Group**

Super unemployed Saii, who lives in the countryside, is a wandering musician, bard and creator of organic punk folk. Saii's music is a conversation with relationships, and a joke greater than the universe. Saii's songs inspire deep contemplation but are also cheerful and fun. Also, his bubbly performance style and melodious lyrics are not aggressive, forming a brilliant music that describes the peaceful life while not forgetting to introduce listeners to a new world. -Choi Myung-jin- Through this one song (Introduction to Avant-Garde Chapter 1) we affirm the alternative attitude and value of ways instead of a word of sincerity, witnessing the evolution of progressive music. -SeoJeongmingap-

"Hi, I'm Saii! Who are you?" -Saii-

How to Translate Sensory Language / Thoughts of Muscles

— Kim Wol-sik

Kim Wok-sik has done work in being cautious of the authoritarian objective of communities that have gone through Korea's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through extremely compressed growth, and focus- es on the values of individuals as growth engines and partners of development and growth. The Any- ang Public Arts Project has conducted the "Com- munity Only in Shape" project, which respects and shares the meanings formed in lives (that are) more creative and independent than art; has planned the life culture regeneration residency "Ingye Mar- ket Project," the cooperative play "Absolute Crisis" starring severely disabled people, a study on the community of contemporary Asian artists titled "Café in Asia," and Sihung's "Alternative Question for Everybody, A3 Residency".

Primitive Recovery of Sensitivity: Burkina Faso West African Music and Dance.

— Emmanuel Migaëlle Sanou

Korean name is Lim San-u (meaning "dancing in the forests, mountains, and rain"). First came to Korea in 2012 as part of the Pocheon African Art Museum performance team. Revealed the discrimination and labor extortion rampant within the museum to the press in February 2014, and formed the perform- ing arts team "Koulé Kan" to spread the word about truthful African culture. A dancer and choreog- rapher with 14 years of experience, (he) has studied traditional African dance and modern dance and conducted African dance workshops across Europe and Africa. Especially wants to share the freedom and energy of African dance with young people in Korea.

— Amidou Diabate

Real name is Amadou Diabate. Born into the Jelly

family (musician class), destined for a musical life. Recognized as a Jelly capable of playing an instru- ment independently at a town festival at the age of 13, and awarded 1st and 2nd places at various arts competitions with the balafon, which he treats like a living being, and talks through music. Believes that the balafon and his music will make people happy. Korean name is Chul-soo. Learns Korean through jokes and songs, and dreams of learning and playing various types of Asian traditional music together.

— Son So-young

At first a friend of Emmanuel and Amadou, realized that it was fate to meet them while solving the Pocheon African Art Museum case together, and served as the planner and manager of "Koulé Kan" while accompanying them. He was mesmerized by the ancient wisdom of humanity contained in Ama- dou's songs. Wishes to sprout the seeds of African dance and music in Korea, to help music and dance come back to our daily lives. Emmanuel, Amadou, and So-young are part of the Korean cultural or- ganization "Escola Alegria," and not only conduct African culture workshops but also carry out var- ious activities related to African culture under the name "Koulé Kan." "Escola Alegria" is a cultural or- ganization that is a collaboration of musicians and dancers from various cultural backgrounds, and has introduced African and Brazilian culture to Korea since 2006.

Case of Cultural Regeneration: Centered on Changgong

— Lee Saeng-gang

A stubborn lady who still believes art can change the world. Liked anywhere artistic events take place even if it was a factory or a rooftop. Worked as a curator here and there, reporter for webzine<Art and Discourse>, and project team manager of <Si- heung Culture Play Ground Changgong>. Also was a planner of various projects mediating society and art. from 2012, CROSS project<SIN JUNG AH: ice-

box in the Cold New Town> and <A Petite Artistic Consideration on the Invisible> has been considered her representative independent projects. Currently, works as a curator of cultural complex BANJUL(-Jongro) planner in residence of Gyeonggi Creation Center.

Moving Modules, Discovery and Action of Ideas

— Ryu Seong-hyo

Born in 1973. Majored in fine arts and started work in exhibition planning, and has continued working for ten years since becoming a founding member of Alternative Cultural Action Funny Revenge in 2003 with the artists he met while serving as the art director at the Independent Cultural Space Agit. Has experienced various works in exhibition planning, festival planning, party planning, consulting, forming cultural spaces, and cultural research, and was in charge of planning projects like the 2011 Busan Rejuvenation Project, 2012 Busan Biennale Subprogram, 2012 Soundwave Festival, and 2012 Graffiti Busan, after which he moved to Seoul to work as Project Director at the magazine ELOQUENCE from 2013, and participated in the 2013 Ansan International Roadside Play Festival as the Creators Producer, and jointly planned the 2014 Seongsoo-dong street art project Urban Up Seoul. Recently been working as the Art Director of the Yeongdo Kkangkkang-I Cultural Imagination Town Project and programmer at Siheung Wolgot Art Dock.

Beyond Region, Location, and Its Ruins...

— Choi Sung-woo / Lecturer

Head Professor of the visual arts management major. French culture. Research program on cultural management & policy major / Paris 1 University art history D.E.A. / Kyunghee University Graduate School MA in art / Kyunghee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art education major. After spending his childhood looking at the ocean outside the hand-sized window at home, Choi only realized in college

what he must do and studied art. Majored in cultural management in France and became a cultural lodging manager by transforming an 80-year-old inn into a lifestyle cultural space. Currently the CEO of Tongui-dong Boan Inn, he does various culture and arts planning. Holds the position of Chief Professor of visual arts management (major) at Dongguk University's Graduate School of Culture and Arts, and President of the Ilmac Cultural Foundation.

— Chang Pa / Participant 1

Interested in relationship-oriented artistic activity and locality, cities and analog cultural activities. Currently planning cultural contents between creative restoration and artistic application at "Tongui-dong Boan Inn," a wooden inn built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 Park Suzy / Participant 2

A love-enthusiast who thought she could become Zorba by liking alcohol, but realized that it was just a requisite condition. Striving to live as an unexhausted person within a fatigued society. Formerly the curator at <Alternative Cultural Action Funny Revenge>, currently the editor at <B-art>, and independent curator.

— Yang Jazoo / Participant 3

[Crossing Borders/Crossing Boundaries] (SAM Museum, St. Petersburg, Russia, 2016) / Yang Jazoo Solo Exhibition [REBORN] (Gallery Shingyo, Seoul, 2015) / Yang Jazoo Solo Exhibition [WALL] (Space Can, Beijing 798, China, 2014) / [HAIKOU INTERNATIONAL YOUTH EXPERIMENTAL ARTS FESTIVAL] (Haikou, China, 2014) / Performance [Moving Triennale Busan, 2014] / Yang Jazoo Solo Exhibition [WE DON'T BLAME YOU] (Kunstlerhaus Bethanien, Berlin, 2011), and others. Will present the cases of Tongui-dong Boan Inn and the case of regional research by artists of rolling 1942 and Busan Choryang 1925, and will participate in a round table with the planners and artists of this project.

Architecture for Everyone

— Yoo Kerl

Architect Yoo Kerl, who has been involved in architectural design activities in the U.S. and Korea for the past 40 years, was awarded the Colorado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war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from 1998, and was also the recipient of the Kim Soo-geun Architecture Award and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ward. He is currently the co-president of iArc Architects. The Miral School, which he designed, was selected as a top 10 building by KBS, and was awarded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ward, the Kim Soo-geun Architecture Award, and th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ward. He graduated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is a member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

Modernity of Pandemonium:

One Nation, Two Types of Middle Class

— Park Hae-cheon

Park served as a research professor with Hongik University's BK21 Metadesign Professional Training Project Group, and gave lectures at Hongik University, Kookmin University, and Dongyang University. Following *Concrete Utopia*, which considers Korea's visual culture through the residential space of apartments, *Apartment Game*, which closely tracks how apartments have changed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experiences and the desires of the middle class in each generation. The history of design is the history of the middle class, and thinking that the history of the middle class is the history of apartments, he continues to ponder the problems of visual culture and society as a whole through various methods of writing. In particular, "critical fiction," a form of experimental writing that effectively unveils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ers and social phenomena by setting up situations

based on various statistics and studies, novels, and news data, vividly depicts a cross-section of Korean society and induces the reader's sympathy.

Traveling between Architecture and Models

— Chen Dai-goang

Chen studied art history at Dongguk University, studied at the Kunstakademie Munster for ten years from 1996 up to Meister level, and was active in Germany. He works on location-dependent work related to oriental philosophy based on architecture and the environment, exploring various fields and mediums including planes, images, installations, sculptures, media, and design. An artist's work starts from the consideration and exploration of the space and location in which artistic intervention and execution are realized. An artist adjoins the physical, spatial and architectural properties of the exhibition space: the topographical, geological and natural environment of the location of the exhibition space; and sometimes the histor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in order to adopt a site-specific method and strategy of working.

— Baek Gi-young

Born in 1969 in Bongpyeong, Pyongchang, Gangwon Province, Baek majored in painting at Hongik University and studied media art at the Kunstakademie Munster in Germany. He served as the director of Gwangju Uijae Creation Studio in 2006; as the director of Community Space Litmus in Wongok-dong, Ansan, in 2007; and as the arts and letters team leader at the Gyeonggi Museum of Modern Art from 2011 to 2012. As the chief arts and letters scholar of the literary arts support team at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n 2013, (he) planned educational projects such as the literary arts support project and the summer academy, served as the northern office head of th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in 2015, and currently works as the arts and letters research director at the Seoul Museum of Art since November of the same year.

Urban Play Development Project

— Woops Yang

From 2013, Woops Yang participated in a participatory performance called <Urban Play Development Project>. Starting from the concern that playing within a city is merely an extension of consumerism, plays that awaken the amusement instinct in a jungle called a city and that neither consume nor waste are being developed and experimented with.

Into the Site of Ecological Art_Wasting Time with Art

— Spring Day Artist Cooperative Association

There was too little time for the resident artists who had moved into the creation studio located on the isolated Seongamdo Island to adapt to the region or to create art by drawing on the local culture. And, as the artists' residence period ranged from 3 months to as much as 1-2 years, it was difficult to expect the creation of new works of art unique to the Gyeonggi Creation Center and the resident artists, as there was hardly any interaction between the artists and the region. This is the reason why the "Spring Day Artist Cooperative Association" was founded.

"Most of the resident artists stayed in their studios and didn't know the region, and everything was over once they simply left, so it was too consuming. This was a problem regarding the role as a residency space as well as a problem for the resident artists. By organizing a cooperative association centered on the resident artists, a cultural and artistic project spanning the region is being actively promoted, expanding into Daebudo Island and farther afield, such as to Ansan." (Jung Gi-hyun, President of the Spring Day Artist Cooperative)

Into the Site of Ecological Art_Wasting Time with Art

— Kang soyoung liillil

Kang is a visual artist who investigates places relat-

ed to the early appearance of the Earth and creates multimedia installations. She works on reproducing the Earth's holy energy into visual and auditory outputs. The background to her works usually consists of places with remnants of the Earth's early ecological environments and places with complex national borders. Encountering a Pole for the first time while staying at the Sejong base on King George Island in Antarctica in 2006, she was selected for the artist expedition residency of New York's The Arctic Circle and went to the North Pole, sailing north latitude 80 degrees for three weeks. She also visited Western Australia in 2013, following the investigation schedule of NASA's astrobiologists on an unofficial route in 2013. Since 2009, she has been continuing projects by traversing the peripheral islands of East Asia. She held private exhibitions at the Gyeong Museum of Modern Art, Alternative Space Pool, Imperial Palace of Hue in Vietnam, and the Ping Pong Art Space in Taipei, and held a screening of her animation at the 2006 Goteborg Film Festival for international shorts. Recently, she was in charge of stage production for "Seoul Connection," which was shown in the Korzo Theater in The Hague, and completed an exhibition at the opening exhibition of the Gwangju Asia Culture Center, "Plastic Myths, Cultural Station Seoul 284." 2. A melting North Pole, vanishing ice, heating strata. What does it mean to live as an artist in an era of rapid climate change? Listening to a story about the early Earth and current climate change from a scientist: Introducing captions for (her) works as an artist from Liillil, and the activities of global art institutions related to the Earth and cosmic ecology.

— Hirofumi Asahi

Dr. Hirofumi, a Paleo-oceanographer interested in climate change and the geology of the polar regions and ancient Earth, studies the history of climate by using the geological records of the oceans. In an effort to understand the climate response of the North Pole, his work focuses on how sea ice and gla-

ciers have evolved with world climate trends within the geological time scale. He is also striving to find records for the past 100,000 years of the North American glaciers under the international joint research programs of the Integrated Ocean Drilling Program 323 Expedition (Bering Sea) and 341 Expedition (Alaskan Bay). He is currently working at the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on a project to unveil the history of sea ice in the Arctic Ocean.

Open City, Cross & Connect

— Cho Hyeong-seob

Born in 1975 in Busan, active in Gyeonggi and Busan. Completed an art degree at Bauhaus Design School in Germany. Jo produces installations and images, and community art based on objects, mainly doing work that evokes the memories possessed by objects or spaces and re-contextualizing them in new contexts. He currently operates a residency program at Open Space Bae based on urban research.

— Seo Pyong-joo

While looking for a studio after graduating from the Graduate School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in 2014, ended up making a space with a few rebellious people. Based in Busan, like most other artists, he suffers from financial difficulties.

ABC Party

— Deconstruction and Psychedelic

Music: We Dance, Water Sports, Zion Luz (feat. Linda), Searching For Soul Drummer, Sugar Suk-Yuel
Performance: Kang Tae-young (actor), Park Hyun-ji (actor) + Special Guest

Video and Installation: Song Ho-jun

Poster: Choi Sang-baek, Kim Hyo-sook

Acoustics: park Jae-sik (Sweet Sound)

We Dance makes people happy. Water Sports are everywhere. Is Zion Luz Brazilian.

Searching For Soul Drummer, found a drummer

Sugar Suk-Yuel is exhilarated.

"It's so difficult to do energetic artistic (?) work in a

world where so many things are happening."

Song Ho-joon (39)

Shed the authority of creation and intuition with comedy, and energy once more with live music. Go!

July 31 (Sun) _____

Joint Growth of Art and Companies_Based on Hyundai Motors Art Project

— Lee Dae-hyung

Born in 1974. Graduated with a degree in art from Hongik University, and an MA in curatorial studies from Columbia University. Founded the curating company Hzone in 2008, and planned various important exhibitions including <Korean Eye> and <Korea Tomorrow>. Planned the 2014 Busan Biennale Academic Conference and the 2013 Cheongju International Craft Biennale International Hall Academic Conference; major publications include Korean Eye (2010) from the global publisher SKIRA. Currently serving as the Art Director for Hyundai Motors, and working on partnership programs with the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Tate Modern, and LA County Art Museum, as well as a global art broadcasting program in cooperation with Bloomberg. Recently selected as the Art Director for the Korean Stage at the 2017 Venice Biennale.

— Jung Il-jo

Born in 1974, completed a PhD in industrial design at Ewha Womans University, School of Art. As a journalist who worked her way through the daily, weekly and biweekly editing rooms, she entered the monthly <Public Art> as editing team leader in 2011, finally earning the title of editor-in-chief. Saying, "I might now know a little bit about modern art," after covering news and writing articles since 2002, currently working hard solely with her willpower, despite a weak body, even taking care of foreign events.

모두 다 발언

참여자들의 이야기

참가자1 —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좋았던 점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다양한 분들, 아티스트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았던 시간이었어요. 단점은 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불편하게 좀 있었습니다. 남자 숙소는 한 방을 10명이 사용했는데 화장실은 하나였어요. 강의는 전반적으로 맘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좀 걸렸던 부분은 일부 렉처들이 텍스트나 사진으로만 표현이 되어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불만이 상당히 많았어요. 참여한다고 보다는 어딘가에 제가 와서 발표를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직에 계시고, 저희보다 선배이신 분들이라 선례를 듣는 게 당연하지만 짧은 영상이 됐든 좀 더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조금 더 만족도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참가자2 — 제가 가로지르기 캠프에 온 것은 예술가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서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예술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재학생들이 너무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학교 밖에 에너지가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밖에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활동하는 기획자나 예술가들을 직접 만나고 인연을 맺고 싶었습니다. 참여하는 동안에 인상에 남은 개념들 혹은 자료집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단어들을 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메모도 적어보았습니다.

이곳으로 공간이동을 당했다
돌이켜보면 여기 시흥은
손가락과 손목이 공중에서 힘주고
그 엄청난 퍼포먼스들을 여기서
그 장소 무서운 고향
공간의 시간이동도 이 참에 한번 해보자
유능한 스파이처럼 캐내고 번져서 집에 들어가서는
할머니처럼 유창하게
하지만 이내 뭐 어떡냐 죽이 맞았던가
가로지르려면 어찌해야 하나요.
경치와 경제라는 묘색에게 기죽지 말자
예술 속에 노동이 깃든 사태도 발견하면서
신체와 상처 입은 병사의 정성으로 저대로 오래도록 일치단결 말고
동상으로 밑바닥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어가자 내 날개 위에서

스텝1 최윤정 — 경계를 대하는 두 가지 놀이에 대하여

부여에는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 1967년 당시 많은 언론 보도로 유명해진 이곳은, 김수근이 지은 왜색으로 '유명한' 박물관이다. 일본 신사를 닮았다는 비판에 다수가 탑승하여 김수근과 박물관을 몰아세울 때, 당시 김수근의 건축사무소 직원이었던 유결은 이렇게 생각했다. '왜색이 무엇이기예?' '한국색은 무엇이기예?' '그렇다면, 왜색이 어때서?'

2012년 유결은 서울시청 신청사로 건축의 기본정신 '조화'를 잃었다는 또 한번의 논란을 경험하며, 과거와 달라지지 않은 현재를 느꼈다고 한다. 우리에게 만연해있는, 순진하게 군집하는 습관은 1960, 70년대나 2000년대나 같이 때문이다. 우리는, 경계 밖의 것이 되는 건 어려운 걸까?

그에 대한 소급한 해갈로 2016년 <예술로 가로지르기>에서는 두 가지 놀이를 마련했다. 이분법적 세계를 벗어나는 시소타기와 줄타기.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처럼 질문과 대답 사이 어디쯤에 깨달음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 수반되어야 할 수월한 대화를 위한 '시소타기'는 논란을 중심에 둔 시소 위에 '반대'를 초청하여 대화로 오르내리는 순간을 놀이로서 즐기는 것이다. '반대'를 놀이로 만나는 순간 서로가 폐쇄된 무엇의 존재가 아닌 경계를 넘나들며 확장되는 깨달음으로 만날 수 있다.

또한, 우리에게는 경계를 벗어나 다른 세계에는 무엇이 존재하는지 탐구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이과와 문과로 나뉘 길러지는 이상한 세계에 사는 우리에게 경계 밖을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기에 스스로 경계라는 이름의 줄 위에 올라타려는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분야라는 이름의 경계 안에서 자란 좁은 시야가 초원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는 '줄타기'놀이이다.

<예술로 가로지르기>는 그런 줄타기 위에 선 용감자들을 위한 부채가 되고자 했고, 다양한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진 이를 만나는 시소가 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고, 지역을 넘나들기를 지원했다. 자신만의 줄타기를 선보일 준비된 사람들에게 유용할 부채가 되었기를 바란다. 다양함을 만나 훌륭한 반대가 되고자 했던 이들에게는 훌륭한 시소였기를 바란다.

스텝2 이상민 — 여느 기획사업과 마찬가지로, <예술로가로지르기>는 내부의 많은 사람들과 수차례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쳐 기획되었습니다. 그런 자리에 제가 조금이라도 참여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작년 <예술로가로지르기>의 책자를 살펴보면, ‘예술가들 앞에서 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볼도저 앞에서 삽질하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이진경 선생님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지난 행사에 대한 책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몇 시간 동안 사진을 살펴봤습니다. 휴일에 일을 했지만, 오랜만에 참여자들이 다시 만나는 것 같아서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다들 열성적으로 워크숍에 참여하고 계시더군요.

<예술로가로지르기>는 참여자들의 참여도와 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조금씩 다른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술로가로지르기>를 뭐라고 정의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뭘까요?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사람들이 왜 참여하게 됐는지가 저는 조금 궁금합니다.

어제 영통에서 신기한 플라마켓을 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미용실, 옷가게, 커피숍 등등 동네 사장님들이 골목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기획한 것이라 하더군요. 거기다 가게 단골손님들과 동네 주민들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보태게 되고, 뭐 결국엔 동네잔치가 되더군요. 기획자와 참여자의 구분이 없는 모습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예술로가로지르기>도 그럴 수 있을까요? 참여자들이 기획단계에서부터 강연자를 섭외하고 워크숍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실 처음 기획에 참여할 때부터 이런 바람이 있었습니다. 내 맘이 네 맘 같지 않는데, 사람들이 뭘 원할지 참 막연하더라고요.

매년 <예술로가로지르기>는 조금씩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또 어떤 모습일지, 내년에도 이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 기다려지네요. 다시 뵈 수 있기를 바랄게요.

**Everyone's Speech
Stories from
Participants**

Participant 1 — I am gaining a lot by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The good thing was getting to meet and hear stories from various people in diverse fields, as well as the artists. The shortcomings included the inconvenience in using certain facilities. The men's lodging was one room for ten people, and there was only one bathroom. The lectures were satisfactory overall. But one thing that was uncomfortable was that some lectures were given using only text or pictures, and I had a lot of complaints in that respect. It was as if I was somewhere listening to a presentation, rather than participating in it. I know that it is reasonable to hear the experiences of seniors in their fields, but I felt that it would have been better if there had been ways for the students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whether using short videos or other methods. I think that it would have been more satisfactory.

Participant 2 — The reason I came to the Crossing Over camp was because I wanted to meet the artists. I teach art history to students, but students can't be bothered to study. There are energetic students outside of school, and I was curious about what kind of programs were out there. I also wanted to actually meet the active planners and artists and become acquainted with them. While participating, I also made some memos with concepts that were impressive, or some words that were in the booklet.

I was transported to this place.
When I look back here, Siheung is
fingers and wrists exerting strength in the air.
Such great performances here!
That place, scary hometown!
Let's do a special time travel at this chance,
Dig up and spread like a competent spy, and go back home.
Eloquent like a grandmother...
But soon it doesn't matter, did it go well together?
What do I do to cross over?
Let's not be intimidated by the tricks of scenery and economics.
Even while discovering the situation of labor embedded within art
With the body and sincerity of an injured soldier, not united for
such a long time.
To the same as above, to the bottom, let's continue little by little
upon my wings.

Staff 1 Choi Yoon-jung — On the two plays and treating boundaries

There is a famous museum in Buyeo. This place, made famous in 1967 by numerous press reports, was built by Kim Soo-geun, and is “famous” for its Japanese style. When the majority got on the bandwagon saying that it was similar to a Japanese shrine and drove Kim Soo-geun and the museum to the edge, Yoo Kerl, who was an employee of Kim Soo-geun’s architecture firm at the time, asked himself: “What is Japanese style? What is Korean style? And what is wrong with Japanese style?”

Experiencing another controversy about how the fundamental spirit of architecture, “harmony,” had been lost in the construction of the new building of Seoul City Hall in 2012, he said that he had experienced a present that was no different from the past. This is because the habit common to us all, of naively gathering into crowds, is the same in the 2000s as it was in the 1960s and ‘70s. Is it difficult for us to be (human) beings outside the boundary?

To resolve this question in retrospect, <Crossing Over with Art 2016> prepared two kinds of plays.

Seesaw Riding and Tightrope Walking to Escape a World of Dichotomy

Just like the Socratic Method, I think there is a form of enlightenment somewhere between questions and answers. “Seesaw riding,” for a fluid conversation that must be accompanied, consists in enjoying the moments of going up and down by putting a controversy at the center and inviting an “opponent” onto the other side. The moment an “opponent” is met in the play, the two factions can meet with the realization that they are not closed existences but something that can be expanded by transcending boundaries.

Also, we need to adopt an attitude of going beyond our boundaries and exploring what exists in other worlds. For us, living in an odd world that divides people into the sciences and the humanities from an early age, getting out of that boundary is not easy. Therefore, a proactive attitude of trying to mount a tightrope called a boundary on one’s own is necessary. It is a “tightrope walking” play that enables a narrow view nurtured within a boundary called expertise to head toward a wider plain.

<Crossing Over with Art> was intended as a fan for brave people walking on such tightropes, and a “seesaw” for diverse people to meet those with different opinions. We hoped that through this, various genres and regions could be transcended. I hope that this was a useful fan for people ready to demonstrate their own tightrope

walking ability. And I hope that it was an excellent seesaw for those willing to meet diversity and become an excellent “opponent.”

Staff 2 Lee Sang-min — Just like any other planning project, <Crossing Over with Art> was planned through multiple discussions of ideas with many people within the organization. I am thankful for having been able to be even a small part of that process.

Looking over last year’s <Crossing Over with Art> booklets, Lee Jin-kyung’s remark that “talking about art in front of artists is similar to shoveling in front of a bulldozer” is truly memorable. So it was a little bit daunting to participate in the planning process.

These days, it’s said that they’re making a book on the recent event. So I looked over the photos for several hours yesterday. I worked during a holiday, but it was pleasant and enjoyable to meet the participants again after a while. Whatever was so fun, they were all passionately participating in the workshops.

It feels like <Crossing Over with Art> is hugely influenced by the participation and abilities of the participants. So every year is a bit different from the others. I think it would be hard to define <Crossing Over with Art> as something clearly. What would it be? I am a little curious as to what was so fun, and what made people participate in it.

Yesterday, I saw an amusing flea market in Yeongtong. When asked, they said that all of the barbershops, clothing stores, coffee shops, etc. were all planned jointly by the store owners so as to activate the alley. And frequent visitors and local residents also added various ideas, so it was a local party in the end. It was fun to see that there was no division between the planners and the participants.

Could <Crossing Over with Art> also be like that? What if the participants were to participate in recruiting lecturers and planning workshop programs from the planning phase? In fact, I had this wish when I was first participating in the planning. As “my mind is not like yours,” what people want is really vague.

I think <Crossing Over with Art> is a little bit different every year. I am curious about how it will look next year, and I can’t wait to see whether I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the project again next year. I hope that I will see you again!

현장 사진

2016 예술로 가로지르기 경계와 차이

환경, 생태, 예술, 디자인, 건축, 아시아, 다양성

주최, 주관  유가농업연구소

10:00-11:30 기조강연 박찬경
주제 미술, 간접, 할머니 : '무늬'로서의 주제 (지혜관 2F 카페)

11:30-12:20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확인, 숙소배정, 프로그램 및 일정소개

14:00-17:30 워크숍1 김지하 / 실험영화와 예술 (오펜관 2F 문화실)
워크숍2 안지마+이부록 / 예술가와 책 (지혜관 진로도서관)
워크숍3 성기완 / 사운드아트_청각공간 이해 (오펜관 1F 시민실)
워크숍4 김윤진 / 몸과 춤의 언어 (오펜관 B1온소리실)
워크숍5 스페이스 오뉴월 / 합정지구의 대인모색 실험 (오펜관 2F 생명실)

19:00-21:00 라운드테이블
참여실 / 주제 ① 시흥기획자 4사4색 동상이몽 (오펜관 1F 참여실)
(진행, 최정수 / 청공, 월곶예술공판정, 도일시정, 모랫골)
시민실 / 주제 ② 젊은 문학인들의 대담 (금정연, 황예인, 정지돈) (오펜관 1F 시민실)

10:00-12:20 강연 ① 김용진, ② 안상수 (+김종길)
주제 ① 독립출판의 판 짓기, 프로아마추어리즘
주제 ② 안상수, 날개, 머리 위, 날 뿜을 것 같 (지혜관 2F 카페)

14:00-17:30 워크숍1 진금주 / 통영, 예술인 마케팅과 전략 (오펜관 2F 생명실)
워크숍2 강지은 / '모도서관'
워크숍3 김현 / (오펜관 2F 예술실)
워크숍4 차정 / (온소리실)
(오펜관 2F 문화실)

18:00 연 (리퍼케이션, 유가농업연구소)

7.27 (수)
들어가기

09:00-12:00 강연 김달
주제 김달

14:00-18:00 워크숍1 두
워크숍2 브
시흥현장
시흥현장

19:30-21:00 라운드테
최성우, 창

09:00-12:00 강연 ① 유
주제 ① 오
주제 ② 이

14:00-18:00 워크숍1 현
워크숍2 윤
현장워크
워크숍4 강
워크숍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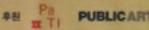
18:00-21:00

09:30-



2016.7.27. 수 - 31.일
 시흥 ABC행복학습타운
 문의전화 031-310-6011~2



7.29 (금)
 언어 번역하기 (지혜관 2F 카페)

7.29 (금)
 지역과 아시아

네티즌 커뮤니티 / 근육의 생각 (오름관 2F 문화실)
 블루키나 파소 / 서아프리카 / 음악과 춤 (오름관 B1 온소리실)
 워크숍A 시흥문화발전소 창공+시흥유통상가+갯골 / 시흥문화현장 투어
 워크숍B 월곶예술공판장_Art Dock / 움직이는 모듈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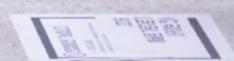
7.30 (토)
 예술과 건축

7.31 (일)
 마무리 강연

7.29 (금)
 예술과 건축

7.30 (토)
 예술과 건축

7.31 (일)
 마무리 강연







목백와점

고호

전공품

대박 세일

유명인물
유명드라마
연인애니메이션

장품
KTV

동아리
연인애니메이션





삼미미
고객센터

2019 KOREA CULTURE FESTIVAL
KOREAN CULTURE FESTIVAL
KOREAN CULTURE FESTIVAL













예술로 가로지르기

『경계와 차이』

일시	2016.07.27(수) ~ 7.31(일)
장소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주최·주관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시흥시
후원	월간 퍼블릭아트, PaTI
총괄	박희주(문화예술본부장)
책임	문성진(문예진흥실장)
기획	김진희(책임), 최윤정, 이상민
협력기획	강소영릴릴, 정일주, 최정수, 송호준
업무지원	권신, 채치용, 정지선, 이경일, 이충림, 이정훈, 윤동현, 한승연, 홍지수, 강동섭, 양수정, 김지연
코디네이터	김태건, 임성균, 서동민, 이한섭, 유태양
시흥시 기획·협력	성기양(평생학습과장), 김정애(상상공감팀장), 정희운
촬영	장성욱
디자인	PaTI

Crossing Over with Art

『Frontiers & Differences』

Date	Jul.27(Wed) - Jul.31(Sun) 2016
Location	Siheung ABC Happy Learning Town
Host	Gyeonggi Province,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Arts Council Korea, Siheung-si
Sponsor	Monthly <Public Art>, PaTI
Supervision	Park Hui-Joo(General Director of Art&Culture Headquarters)
Responsible	Moon Seong-Jin(Art&Culture Department Chief manager)
Planning	Kim Jin-Hee, Choi Yoon Jung, Lee Sang-Min
Cooperative Planning	Kang So-young Lillilil, Jung Il-joo, Choi Jeong-soo, Song Ho-jun
Task Support	Kwon Shin, Chae Chee-Yong, Joung Jisun, Lee Gyungil, Lee Chung Rim, Lee Jeong hun, Yoon Donghyun, Han Seoungyeun, Hong Jisoo, Kang Dongsub, Yang Sujeong, Kim Jeeyeon
Coordinator	Kim Taegeon, Kim Sungkyun, Yoo Taeyang, Lee Hanseob, Seo Dongmin
Siheung-si Planning & Coordination	Kim Jung-ae(Lifelong Learning Department Team Leader), Cheong Hee-yoon
Photo&Video	Jang sunguk
Design	PaTI



PUBLICART

Pa
포티

2016 예술로가로지르기
경계와 차이
Frontiers & Differneces

결과자료집 1/3권

퍼낸날 2016년 12월 31일
퍼낸이 설원기(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편집 김진희, 최윤정
디자인 PaTI
번역 팬트랜스
속기/녹취 박예지, 조지혜

퍼낸곳 경기문화재단
주소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전화 031-231-7200
팩스 031-231-7240
홈페이지 www.ggcf.or.kr

© 2016 경기문화재단
본 책자는 2016 예술로 가로지르기를 위해 경기문화재단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본 권에 실린 글과 도판은 경기문화재단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ISBN 978-89-999-0077-8 (95600)
978-89-999-0076-1 (95600) 세트



978889391900778

95600

ISBN 978-89-999-0077-8 (95600)
ISBN 978-89-999-0076-1 세트